

myFord

The 2nd Winter Edition, 2015

The Era of Diesel, Ford Diesel Line up

세계 최고 기술을 합리적으로 내세우는 포드의 디젤엔진. 유럽 포드의 친환경, 고효율의 철학을 담은 포드의 디젤 라인업이 완성되었다. 몬데오, 쿡가, 포커스로 포드 유럽의 디젤을 만나본다.

선입견을 뒤집는 예견된 반전

익스플로러는 동급 SUV 중에서도 베스트 셀링 카로 명성을 쌓아온지 오래다. 대형 가솔린 SUV라는 선입견에 반전이 이뤄지면서 숨어 있던 장점이 크게 부각됐다.



Go Further

VOYAGE BEYOND GENERATIONS

For over 135 years, Hartmann has defined the luxury travel experience through exquisitely crafted luggage and a strong commitment to innovation in the ever changing landscape of travel.



hartmann
SINCE 1877



7R MASTER
정단폴라그림집 02 3448 5914 현대무늬세탁집 02 3467 8710 JFC물집 02 6137 5592 HOSALAS집 02 551 0867 신세계 물집 02 210 1510
롯데점포물집 02 6116 5398 현대물집 02 3438 6005 유카텔렌세집 02 450 8379 롯데점세집 02 2148 7154 HARTMANN.COM



포드코리아의 스무 살을 되돌아보며...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올해도 포드가 한 뼘 더 훌쩍 자랐습니다. 한국 시장에서 포드코리아의 20년... 어른이 되는 과정은 험난하고 변화무쌍했지만, 그 성장통은 헛되지 않았다고 자부합니다. 지난 20년간 포드는 국내 수입 차 시장에서 양적, 그리고 내실 있는 성장을 위해 끊임없이 달려왔습니다. 무엇보다 '뉴 포드(New Ford)'의 가치 아래 미국 차의 위상을 높인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포드코리아는 매년 가파른 성장률을 보이며, 국내 수입 차 시장 확대의 흐름을 주도하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해왔습니다. 올해에도 그 성장을 지속해 한국 시장 진출 후 최초로 연 1만 대 판매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2015년을 여는 그 신호탄으로 포드의 심장이자 아메리칸 머슬 카의 상징인 올-뉴 머스탱이 출시되었고, 이어 유럽의 고성능 디젤엔진을 탑재한 간판 중형 세단인 올-뉴 몬데오 디젤, 수입 대형 SUV 시장의 절대 강자이자 포드다움의 정수인 익스플로러까지 각기 다른 매력의 다채로운 모델을 선보이며 라인업을 강화해왔습니다. 양적 성장을 위한 글로벌 포드의 노력도 강화되었습니다. 포드는 올 초 '스마트 모빌리티'라는 기업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도시화, 중산층의 성장,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 문제, 밀레니엄 세대의 부상으로 인한 소비자 행동 변화, 제한된 천연자원 등 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른 도전 상황에 대응하고 더 나은 솔루션을 찾기 위한 포드의 의지입니다. 단순히 스마트한 자동차를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탈것과 첨단 기술의 융합을 통해 스마트한 미래 이동 생태계를 만들자는 거대한 청사진입니다. '포드 스마트 모빌리티'는

앞으로 맞이하게 될 또 다른 20년의 성장을 위한 가치이자 동력이 될 것입니다. 2015년은 포드코리아의 더 큰 가능성을 확인하는 해였습니다. 늘 함께해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더욱 성숙하고 발전하는 모습으로 여러분 곁에 함께하는 포드코리아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2월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대표이사 사장 **정재희**

귀하의 모험이 더욱 완벽해집니다 2016 NEW EXPLORER



Limited Model



7 MILLIONS

7백만대
월드 베스트 셀링 SUV



ENGINE

NEW 2.3L 에코부스트 엔진
3.5L TiVCT V6 엔진



**ORIGINAL
TECHNOLOGY**

지형 관리 시스템 (T.M.S)
인텔리전트 4WD
뒷좌석 안전벨트 에어백
3열 파워 폴딩 시트



**NEW
TECHNOLOGY**

핸즈-프리 리프트 게이트
향상된 액티브 파크 어시스트
180도 전방 확인 카메라
220V 파워 소켓

신사 02)3444-1300	대치 02)3442-2300	서초 02)535-3800	방배 02)6929-3000	송파 02)6928-3000	노원 02)6226-1000
마포 02)6420-1000	미아 02)6355-1000	강서 02)2063-6300	동대문 02)2246-2100	영등포 02)6941-3000	구리 031)8034-1000
의정부 031)822-1000	분당 031)714-2004	일산 031)913-2200	수원 031)221-7600	평촌 031)425-2212	인천 032)832-0001
강릉 033)646-2300	원주 033)762-0040	대전 042)823-2000	천안 041)562-0007	전주 063)273-0005	광주 062)515-1010
대구 053)766-2000	포항 054)285-8899	부산 051)758-0075	부산 051)741-5114	울산 052)261-3388	창원 055)715-5000
제주 064)759-9888					

정부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 EXPLORER 2.3 Limited 배기량 2,261cc, 공차중량 2,195kg, 자동 6단, 복합연비 7.9km/ℓ (도시연비 6.8km/ℓ, 고속도로연비 9.8km/ℓ), 5등급, 복합 CO₂ 배출량 215g/km
최근 강화된 연비측정방법으로 인해 연비가 하향되었으며, 기존 방정식에 따른 연비는 복합 8.3km/ℓ, 도심 7.2km/ℓ, 고속도로 10.4km/ℓ입니다.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정비상태 및 외기온도에 따라 실주행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Go Further

ford-korea.com

Contents

myFord

The 2nd Winter Edition, 2015

Play with Ford

04 CEO Message

포드코리아의 스무 살을 되돌아보며...

08 Ford Story_Create New Heritage

천세원 디자이너, 6세대 머스탱의 인테리어 디자인이 탄생하게 된 비하인드 스토리를 소개한다.

10 Ford with Culture_Love in Action!

다양한 사회문제에 사려 깊은 시선으로 접근하며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포드코리아의 따뜻한 이야기.

12 Smart&Technology_The World Best SUVs

포드가 만드는 SUV 모델은 가장 짜릿하되 가장 안전한 주행을 경험할 수 있는 기술이 가득 탑재되어 있다. 출중한 매력을 뽐내는 포드 SUV 모델의 기술을 소개한다.

13 Car Care Tip_폭설에 대비하는 올바른 자세

오너드라이버의 유쾌하고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한 올바른 정보와 노하우를 지금 공개한다.

14 Focus on 1_Legendary Age

포드 머스탱과 GT는 전설적 존재다. 이 둘은 결합과 부활이라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전설의 시대를 이어간다.

16 New Ford Life_The Era of Diesel, Ford Diesel Line up

세계 최고 기술을 합리적으로 내세우는 포드의 디젤엔진. 유럽 포드의 친환경, 고효율의 철학을 담은 포드의 디젤 라인업이 완성되었다. 몬데오, 쿡가, 포커스로 포드 유럽의 디젤을 만나본다.

20 Focus on 2_New Face, New Heart

2016 뉴 익스플로러가 새로운 얼굴, 새로운 심장을 탑재하고 돌아왔다. 지난 9월에 열린 2016 뉴 익스플로러 출시 행사에서 이 모든 것을 직접 확인했다.

22 Driving 1_선입견을 뒤집는 예견된 반전

익스플로러는 동급 SUV 중에서도 베스트 셀링 카로 명성을 쌓아온지 오래다. 대형 가솔린 SUV라는 선입견에 반전이 이뤄지면서 숨어 있던 장점이 크게 부각됐다.

28 Take 5_2016 Explorer Exploration

2016 익스플로러는 많은 부분이 변했다. 보이는 곳,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보한 발전을 이룬 다섯 가지 포인트.

30 Celebrity Interview_윤홍천 피아니스트

간판 위의 방랑자 윤홍천 피아니스트와 2016 포드 뉴 익스플로러의 만남. 그의 목표는 완벽함이 아닌, 청중의 마음이다.

34 Driving 2_스마트 & 다이내믹 SUV, New KUGA 디젤

포드 유럽의 미래지향적인 디젤 SUV, 쿡가가 드디어 국내에 상륙했다. 디젤엔진을 얹어 효율성이 좋고, 다부지게 내달리는 쿡가를 만나보자.

38 Driving 3_Focus Diesel Report

2016 뉴 포커스 디젤이 등장한다. 새로운 포커스 디젤의 매력적인 면면과 이면에 숨겨진 흥미로운 이야기를 숫자로 풀어보았다.

42 Driving Course_섬으로 가는 길

가을의 막바지, 포드 몬데오를 타고 청평호 주변을 내달렸다. 전시를 보았고, 미국에 대한 기묘한 논쟁을 하기도 했다. 섬으로 가는 길이었다.

48 Theme Travel with Ford_Driving & Sailing

흰 눈 대신 흰 모래사장, 털모자와 장갑 대신 비키니와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호주에서라면 꿈꿔온 크리스마스가 현실이 된다.



Trendy

52 Ford Guy_Watch Match

포드 머스탱을 닮은 단단하고 역동적인 크로노그래프 워치를 모아봤다.

58 Beauty_Water Bomb&Oil Shield

차가운 바람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줄 견고한 수분 장벽이 필요한 요즘. 겨울철 피부 수분 관리를 위한 철저한 계획을 세워보자.

62 Driving Music_Snow and Ice

눈과 얼음의 계절이다. 몸과 마음에 활기를 더해주는 팝 신보를 소개한다.

63 Ford Choice_Holyday Gifts for Kids

설렘으로 가득한 크리스마스이브! 반짝이는 트리 아래 아이들 몰래 두면 좋은 선물 리스트를 꼽았다.

Life Style

64 Chef's Table_추운 날의 보양식

식자재 고유의 맛에 충실한 정통 중식을 선보이는 여경옥 셰프. 겨울 보양 요리와 함께 그의 요리 인생을 들여보았다.

68 Ford Place_제주도의 재발견

포드 전시장을 둘러본 뒤 제주 시내에만 머물러도 제주도의 특별한 아름다움을 공감하기에 충분하다.

70 Outdoor Leports_Ice Fishing

매서운 추위에 맞서 월척보다 멋진 추억을 낚을 수 있는 얼음낚시의 짜릿한 순간을 느껴보자.

72 Golf Tour_소노펠리체 CC

팔봉산과 홍천강이 어우러진 천혜의 자연환경에서 최적화된 라운드를 즐길 수 있는 소노펠리체 CC를 소개한다.

76 Class_삶을 변화시킬 메모의 기술

삶을 변화시킬 메모의 기술. 그 필요성과 효과적인 방법을 알아보자.

77 Dealer News

포드의 각 딜러사별 주요 뉴스

78 Ford News

포드에서 최근 가장 이슈가 되는 뉴스

80 Lineup

포드 전 차종 제원 정보

82 Ford Network

전국 포드 전시장 네트워크

발행일 2015년 12월

발행처 포드코리아 마케팅팀 서울 강남구 삼성동 144-17 골든타워 18층

기획·편집 (주)엠큐브파트너스 02-548-1601 디자인 (주)128프로젝트 02-2051-1050

인쇄 (주)미래엔 02-3475-3837

<myFord>에 게재된 글과 사진의 무단 사용을 금합니다.

*매거진에 사용된 모든 이미지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조용이며 실제 판매 모델과 다를 수 있습니다.



2014년, 6세대 머스탱이 우리 앞에 등장했다. 50주년을 맞은 머스탱은 기존 모델을 뛰어넘는 극적인 진화를 보여주었다. 특히 인테리어 디자인은 머스탱 역사상 최고의 장인정신과 첨단 기술을 함께 담아냈다는 평을 얻었다. 6세대 머스탱의 인테리어 디자인이 탄생하게 된 비하인드 스토리를 소개한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포드자동차 천세원 디자이너다.

Editor 강미라

Create New Heritage



2015년형 머스탱 조수석에는 질주하는 포니 로고와 함께 'Mustang-Since 1964'라고 쓰인 플레이트가 새겨져 있다. 가장 새롭고 혁신적인 머스탱이되, 50년 동안 쌓아온 머스탱만의 '정신'을 담았다는 의미다. 이러한 인테리어 디자인 콘셉트는 사내 디자이너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치열한 공개경쟁으로 얻어낸 결과다. 최종 선택된 사람은 바로 천세원 선임 디자이너(Senior Designer)다. 그는 50주년 기념 머스탱 인테리어를 스케치할 때, 기존의 머스탱 이미지를 모두 지우고자 했다. 백지 상태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수록 머스탱에 담긴 역사와 특유의 향수(Nostalgia)가 뚜렷해졌다. 그가 이전 세대의 특징한 디자인 요소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그는 출시 이후 지금까지 인기를 끈 모델들의 디자인 요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배치했다. 반세기를 맞은 머스탱을 추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5세대 3스포크 타입을 그대로 유지한 스티어링 휠이나 전통적 머스탱만의 스타일을 살린 인스트루먼트 패널 등이다. 물론 새로운 반세기를 위한 변화도 놓치지 않았다. 에어컨 송풍구는 각진 모습에서 원형으로, 센터 콘솔에는 대형 스크린을 장착하는 등 달라진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머스탱은 첨단 기능을 통해 다양한 운전 재미를 느낄 수 있는데, 보다 진취적이고 자유롭게 느낄 수 있도록 엔진 스타트 스위치 옆에 토글스위치를 달았다. 항공기 조종석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운전자가 필요한 정보와 제어장치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보다 빠르게 스티어링 강도, 엔진 반응, 변속기, 차체 자세 제어장치 등을 최적화할 수 있어 마치 전투기를 조종하는 기분이다. 인체공학적 기술을 적용한 압체 디자인의 시트는 몸에 밀착되어 더욱 편안하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6세대 머스탱은 2014년 디트로이트 오토쇼 '아이즈 온 디자인(Eyes on Design)'에서 양산 차 부문 베스트 디자인상(Best Production Vehicle)을 수상했다. 매년 디트로이트 오토쇼는 양산 차와 콘셉트 카에 대해 최고의 자동차 디자인을 선정한다. 2014년 아이즈 온 디자인 양산 차 부문 결선에 오른 차는 머스탱, 메르세데스-벤츠 C 클래스, 포드 F-150이었다. 천세원 씨는 어릴 때부터 자동차를 그리는 것이 꿈이었다. 연세대 기계공학과에 진학한 그는 자동차를 좀 더 공부하고 싶어 유학길에 올랐다. 2000년 패서디나 아트센터에서 자동차 디자인을 전공한 후 포드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다 좋은 평가를 받아 2004년 졸업하자마자 포드에 입사했다. 이후 포커스, 퓨전, 몬데오 등의 인테리어 디자인을 담당했고 현재 토러스, 에지, 퓨전 등의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활약하고 있다. 이번 머스탱 인테리어 디자인 콘셉트에서 알 수 있듯, 그의 디자인에는 '사람'이 담겨 있다. 사람을 향한 정서와 감성이 묻어나는 것. "가족과 가족을 위한 일이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연스레 가족들이 좋아할 만한 자동차를 생각하고 디자인합니다. 물론 건축과 패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영감을 얻고요." 고객이 자신의 차를 보고 미소 짓기를, 더 거창하게는 포드자동차가 세상과 소통하기를 바란다는 천세원 디자이너. 그의 철학과 열정이 묻어나는 포드자동차 모델을 더욱 자주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ICONIC



THE NAVITIMER. SINCE 1952.

청담 부티크 02-3448-1230 롯데호텔 소공 스토어 02-3789-9017

갤러리아 EAST 수원점 천안점 대전점

롯데백화점 에비뉴엘 강남점 잠실점 월드타워점 대구점 울산점 광주점

부산 서면점 부산 센텀시티점 부산 광복점

신세계백화점 본점 강남점 영등포점 의정부점 인천점 부산 센텀시티점

현대백화점 압구정점 무역센터점 목동점 신촌점 판교점 대구점 울산점

AK플라자 분당점 대백프라자 명보사



INSTRUMENTS FOR PROFESSIONALS™



핑크 워리어스 클래스

사랑은 표현하는 것이다. 물론 말이 아닌 행동으로! 포드코리아의 사회공헌 활동은 그런 의미에서 남다른 진심이 묻어난다. 다양한 사회문제에 사려 깊은 시선으로 접근하며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때문이다. 올 상반기에도 행동을 멈추지 않은 포드코리아의 따뜻한 이야기를 전한다.

Editor 김미라

Love in Action!



포드 환경 프로그램 로고



2015 포드 환경 프로그램 후원금 전달식



난치병 아동을 위한 위시베어 만들기 프로그램

2002년부터 시작된 '포드 환경 프로그램(Ford Motor Company Conservation & Environmental Grants)'이 올해 14회를 맞았다. 국내 생태계 보호, 자연환경과 관련해 활동하는 개인 또는 단체가 지원하면 엄정히 심사해 후원 대상을 선정. 총 5만 달러(약 5500만 원) 상당의 후원금을 지원하는 것. 특히 올해는 단순히 지원자 선발과 후원금 전달에 그치지 않고 '2015 에코 프로젝트'를 함께 시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일반인이 SNS를 통해 환경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실제 제품으로 실현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2002년부터 현재까지 포드코리아의 포드 환경 프로그램이 지원한 단체와 개인은 총 81팀, 후원금은 42만 달러(4억7000만 원)에 이른다.

지난 9월은 포드자동차가 진출한 150여 개국이 함께하는 '포드 글로벌 자원봉사의 달(Global Month of Caring)'로, 올해 10주년을 맞았다. 포드 글로벌 자원봉사의 달에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는데, 올해 포드코리아는 '한국메이크어우시재단'과 함께 난치병 아동을 위한 뜻깊은 행사를 진행했다. 이름하여 '위시베어 만들기 프로그램'. 임직원과 다섯 공식 딜러사가 모여 국내 난치병 투병 중인 만 3~18세 아이들에게 선물할 130여 개의 위시베어를 직접 만들었다. 아이들의 쾌유를 기원하며 완성된 인형은 포드 포커스 디젤 차량 트렁크에 가득 실려 아이들에게 전달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마련된 수익금은 난치병 아동의 소원을 이뤄주는 기금으로 쓰일 예정이다.

이어 10월에는 포드 신사 전시장에서 '핑크 워리어스 클래스(Pink Warriors Class)'를 개최했다. 핑크 워리어스 클래스는 포드의 유방암 인식 증진 · 예방 지원 프로그램 '워리어스 인 핑크(Warriors in Pink)' 캠페인의 일환으로, 이번 클래스의 주제는 '엄마와 딸 사이의 건강 소통 프로젝트'였다. 유방암에 대한 일상적 대화가 정착돼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200여 명의 모녀를 초청해 현직 유방암 전문의의 '유방암 지식 클래스', 모녀가 커를 요가를 배우는 '유방 건강 요가 클래스'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김성아(32세) 씨는 "무엇보다 건강에 대해 가족들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며, "핑크 워리어스 클래스를 계기로 앞으로 어머니와 여성 건강에 대한 대화를 자주 나누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국에서 세 돌을 맞은 핑크 워리어스 클래스는 자가 검진을 통해 유방 건강에 대한 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하며, 여성으로서 모녀가 서로 '건강 지킴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포드는 현재까지 약 1500억 원(1억2800만 달러)의 기금을 조성해 유방암 예방과 퇴치를 위한 광범위한 활동을 적극 지원해왔다. 2006년부터는 워리어스 인 핑크 의류 및 액세서리 컬렉션을 선보여 판매 수익금 전액을 유방암 자선 단체에 후원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는 모델스 오브 커리지(Models of Courage) 프로그램으로 유방암을 극복한 이들을 모델로 선정해 다양한 유방암 예방 캠페인을 지속하고 있다. 올해 글로벌 캠페인의 테마는 '모어 굿 데이즈(More Good Days)'로, 밀 트레인(Meal Train)과 리프트(Lyft)와의 특별한 협업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INTRODUCING 2016 NEW FOCUS DIESEL

복합연비 기준

18.1 km/ℓ
[1등급 연비]



유럽에서 탄생한 월드 베스트 셀링카

1.5 TDCi 디젤엔진 | 해치백 모델 & 세단 모델 | 자동 주차 지원 시스템 | 액티브 시티 스톱 | 문콕 방지 장치

신사	02)3444-1300	대치	02)3442-2300	서초	02)535-3800	방배	02)6929-3000	송파	02)6928-3000	노원	02)6226-1000
마포	02)6420-1000	미아	02)6355-1000	강서	02)2063-6300	동대문	02)2246-2100	영등포	02)6941-3000	구리	031)8034-1000
의정부	031)822-1000	분당	031)714-2004	일산	031)913-2200	수원	031)221-7600	평촌	031)425-2212	인천	032)832-0001
강릉	033)646-2300	원주	033)762-0040	대전	042)823-2000	천안	041)562-0007	전주	063)273-0005	광주	062)515-1010
대구	053)766-2000	포항	054)285-8899	부산	051)758-0075	부산	051)741-5114	울산	052)261-3388	창원	055)715-5000
제주	064)759-9888										

정부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 2016 FOCUS DIESEL 배기량 1,499cc, 공차중량 1,470kg, 자동 6단, 복합연비 18.1km/ℓ (도시연비 16.4km/ℓ, 고속도로연비 20.8km/ℓ), 1등급, 복합 CO₂ 배출량 105g/km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정비상태 및 외기온도에 따라 실주행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Go Further

ford-korea.com



The World Best SUVs

포드가 만드는 SUV 모델은 가장 짜릿하되 가장 안전한 주행을 경험할 수 있는 기술이 가득 탑재되어 있다. 익스플로러, 이스케이프, 쿠파에 이르기까지 하나같이 출중한 매력을 뽐내는 포드 SUV 모델의 기술을 소개한다.

Editor 강미라



SUV를 선택할 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얼마나 넓은가’다. 자유로운 액티비티 활동을 위해서든, 탑승할 가족이 많아서든 말이다. 익스플로러는 완벽한 3열 구조의 7인승 SUV다. 탑승 공간만 4292L가 나온다. 버튼 하나로 3열 좌석을 자유롭게 펼치고 접을 수 있는 파워폴드(PowerFold®) 기능도 제공한다. 이스케이프와 새로운 쿠파 디젤은 60/40 분할접이식 2열 좌석을 제공한다. 트렁크 공간은 기본 971L를 확보했으며, 2열 좌석을 접을 경우 최대 1920L의 적재 공간이 나온다. 다음으로 따져볼 것은 ‘모험심’. 탐험가의 로망을 만족시킬 기능을 포드의 SUV 라인에서 모두 만날 수 있다. 바로 인텔리전트 4WD 시스템이다. 초당 수백 개의 운전 데이터를 모니터링해 자동으로 리어 휠 토크를 조정한다. 조향 능력을 개선하고 눈, 진흙, 빗길에서도 휠이 미끄러지지 않는다. SUV다운 면모를 제대로 갖췄다. 특히 익스플로러의 인텔리전트 지형 관리 시스템(TMS, Terrain Management System)은 인텔리전트 4WD 시스템과 결합해 극도로 험난한 지형까지 정복할 수 있도록 한다. 센터 콘솔에 있는 다이얼을 돌리면 설정한 모드에 따라 엔진, 변속기, 브레이크 제어 시스템을 노면 조건에 맞게 제어해준다. ‘Normal’, ‘Mud/Rut’, ‘Sand’, ‘Snow/Gravel/Grass’ 네 가지 모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2016년형 익스플로러에는 ‘힐 디센트 컨트롤(HDC, Hill Descent Control)’을 추가해 가파른 경사나 울퉁불퉁한 내리막길을 달릴 때도 차분하고 흔들림 없는 운전을 도와준다. HDC 버튼을 누르고 원하는 속도를 정하기만 하면 된다.

포드의 SUV에는 업계 최초로 개발한 전자제어 주행 안정 장치(RSC®, Roll Stability Control™)가 내장된 어드밴스 트랙(AdvanceTrac®)이 탑재되어 있다. 포드만의 독보적 기술로 탄생한 이 시스템은 주행을 모니터링하는 두 개의 ‘자이로 센서’를 사용해 바퀴의 제동을 독립적으로 제어한다. 자동차의 기울어짐을 측정해 전복 사고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 익스플로러와 이스케이프, 쿠파에는 키를 소지한 채 뒷좌석 범퍼 아래 부분에 발을 가볍게 차는 동작을 하면 리프트 게이트가 자동으로 열리는 ‘핸즈프리 파워 리프트 게이트’ 기술을 적용했다. 양손에 짐을 들고 있어도 편하게 열 수 있다. 리어 도어를 닫을 때도 같은 방법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이스케이프는 코너링을 부드럽게 해주는 토크 벡터링 컨트롤(Torque Vectoring Control)과 커브 컨트롤(Curve Control) 기능을 함께 장착한 SUV다. 이는 새로운 쿠파에도 장착되어 SUV로서의 성능을 증폭시키고 있다. 토크 벡터링 컨트롤 기능은 코너를 돌 때 앞쪽 휠 안쪽에 미세하게 브레이크를 걸어 부드럽게 회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 커브 컨트롤 기능은 운전자가 빠른 속도로 코너를 돌 경우, 브레이크 컨트롤을 활용해 속력을 조절하는 기능이다. 국내에 처음 선보이는 쿠파는 배기가스 배출을 절감하는 포드의 에코네틱 기술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주행 시 선택할 수 있는 에코 모드(Eco Mode)를 비롯해 기어 변속 표시 장치(Gear Shift Indicator), 액티브 그릴 셔터(Active Grille Shutter) 등을 만날 수 있다.



폭설에 대비하는 올바른 자세

강추위는 물론 폭설이 잦은 겨울, 오너드라이버의 유쾌하고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한 올바른 정보와 노하우를 지금 공개한다.

Writer 이병진(자동차 칼럼니스트)



지 구온난화로 봄, 가을은 짧아지고 겨울은 점점 길고 추워지고 있다. 올겨울엔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릴 거라는 예보도 들려온다. 겨울 눈 소식은 낭만적이지만, 운전자에게는 그렇지 않다. 운전하기도 힘들고 위험 요소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최근 고성능 수입 차와 뒷바퀴 굴림 차가 많아지면서 겨울철 안전 운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더불어 윈터 타이어 및 겨울철 안전 관련 아이템에 대한 정보도 많아졌다. 하지만 그만큼 잘못된 상식도 난무한다. 아는 것이 힘이지만 바르고 정확히 알 때 진짜 힘이 발휘되는 법이다. 겨울철 안전 운전에 가장 효과적인 아이템은 무엇일까? 바로 윈터 타이어다. 눈이 금방 녹아 없어지는 도심이라도 기온이 영하권에 접어들면 윈터 타이어가 필요하다. 더 정확히는 외부 온도가 영상 7℃가량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윈터 타이어가 필요해진다. 7℃ 아래에서는 일반타이어의 고무가 딱딱하게 얼고 굳기 시작해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며 급격히 접지력을 잃기 때문이다. 같은 고무 타이어인데 윈터 타이어라고 뭐가 그리 다를까 싶겠지만, 완전히 다르다. 타이어의 주재료인 고무 재질과 성분, 제조 과정을 달리해 만들기에 낮은 온도에서도 충분한 접지력을 발휘하게 된다. 특히 윈터 타이어는 눈길과 빙판길에서 더욱 빛을 발한다. 윈터 타이어 특유의 트레드 구조로 배수 성능도 좋아 수상스키처럼 물 위를 떠가는 수막현상도 적어진다. 윈터 타이어 표면은 미세한 기포가 무수히 많은 발포 고무로 만들어진다. 발포 고무는 표면의 기포들이 빙판과 눈길에 밀착하는 접지 면적을 넓혀 안정적인 주행 성능을 보장한다. 더불어 트레드에 세로 블록을 만들어 좌우로 미끄러지지 않게 한다. 윈터 타이어는 장착할 때 좀 더 신경 써야 한다. 일반 타이어와 달리 무조건 한쪽 방향으로 굴러가도록 설계한 경우가 많아 올바른 방향으로 장착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 윈터 타이어는 네 바퀴 모두 장착하는 것이 원칙이다. 구동바퀴에만 윈터 타이어를 장착할 경우 오버스티어나 언더스티어가 발생해 안정적인 주행을 방해할 수 있다. 추운 겨울 눈길과 빙판길에 특화된 타이어인 만큼 윈터 타이어는 일반 타이어보다 좀 더 세심한 관찰과 관리가 필요하다. 마모 한계선 외에 겨울철 주행 성능을 가능하는 한계선이 하나 더 있는 윈터 타이어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이 한계선은 윈터 타이어의 핵심인 트레드와 사이프의 상태와 마모도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외부 온도가 낮아타이어 속 공기압이 쉽게 떨어지는 겨울철 윈터 타이어의 공기압 관리 또한 매우 중요하다. 공기압이 부족하면 제동뿐 아니라 조향 성능, 내구성까지 떨어지는 결정적 원인이 된다. 만약 윈터 타이어를 준비하지 못했다면 스노체인 하나쯤은 준비할 것. 스노체인도 종류와 타이어 크기에 따라 고르고, 체인은 반드시 구동축 바퀴에 장착해야 적절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타이어에 도포해 사용하는 스프레이 체인은 대형 마트 자동차용품 코너에서도 쉽게 구입할 수 있으며 가격도 저렴하다. 차가 미끄러져 바퀴가 헛돌거나 탈출이 어려운 눈길과 빙판길에서 타이어에 스프레이 체인을 충분히 뿌린 뒤 움직이면 기대 이상의 효과에 새삼 감탄할 것이다. 그동안 아무 문제없이 운전만 잘해왔다고 자만하는 대신 미미미리 월동 준비를 해두는 것이 어떨까.



Legendary Age

포드 머스탱과 GT는 전설적 존재다. 포드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시대의 아이콘이다. 이 둘은 결합과 부활이라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전설의 시대를 이어간다.

Writer 임우신(자동차 칼럼니스트)

1



2



3



4

5

1 페티즈 개러지 머스탱 GT 킹 에디션 2 2010 나스카 스프린트 컵 시리즈(NASCAR Sprint Cup Series)의 공식 선드 차인 머스탱 GT 5.0과 페티 개러지 3 1966년 탄생한 전설적인 스포츠카 GT40 4 2006 포드 GT 5 리처드 페티는 자신의 이름을 본뜬 '페티즈 개러지(Petty's Garage)'라는 퍼포먼스 스피드 숍을 운영한다.

전설의 결합,

페티즈 개러지 2016 머스탱 GT 킹 에디션

머스탱은 전설의 스포츠카다. 1964년 처음 나와 현재까지 6세대를 이어오며 젊은이들을 위한 아이콘의 반열에 올랐다. 리처드 페티는 '더 킹(The King)'이라 불리는 나스카의 영웅이다. 나스카에서 일곱 번이나 챔피언에 올랐고, 200회 넘는 레이스에서 우승했다. 그뿐 아니다. 수많은 대회에서 기념비적 승리를 거두었다. 살아 있는 전설이나 다름없다. 머스탱 GT 킹 에디션은 전설과 전설의 만남이다. 리처드 페티는 자신의 이름을 본뜬 '페티즈 개러지(Petty's Garage)'라는 퍼포먼스 스피드 숍을 운영한다. 트랙에서 쌓은 경험과 천부적 재능을 살려 고성능 자동차와 경주차 등을 개발하고 만든다. 머스탱 GT 킹 에디션은 한정판 모델로 리처드 페티와 공동 개발했다. 밀바당은 5L 엔진을 얹은 머스탱 GT다. V8 엔진에 슈퍼 차저를 달아 최고 출력을 670마력까지 올렸다. 휠과 부싱, 레이싱 서스펜션, 슈퍼 차저 등은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퍼포먼스 지향 모델답게 맞춤형 엔진 세팅, 콜드 에어 인테이크, 마그나플로 배기 시스템, 리어 디퓨저, 기어 레버, 플로어 매트, 리어 스포일러 등도 준비했다. 생산 대수는 300대. 243대는 킹, 43대는 킹 프리미어, 14대는 킹 프리미어 컨버터블로 구성했다. 모든

머스탱 GT 킹 에디션에는 리처드 페티의 사인이 새겨진다. 300번째 킹 에디션이 팔리는 순간 더 이상 이 차는 살 수 없다. 자동으로 전설적 존재가 된다. 머스탱과 페티라는 걸출한 전설이 만나 머스탱 역사에 길이 남을 자동차가 됐다.

GT의 부활

GT는 포드의 전설적 스포츠카다. 기원은 196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름은 GT40으로 24시간 레이스에서 1~3위로 나란히 들어오는 위업을 달성했다. 그뿐 아니라 GT40은 이후 4년 연속 르망 우승컵을 거머쥐는 대기록을 세웠다. 이러한 역사의 명장면이 있기까지 얹힌 뒷얘기는 더욱 전설적이다. 페라리와 협력해 모터스포츠에서 성과를 얻으려다 틀어지고, 결국 페라리의 도움 없이 페라리보다 훌륭한 차를 만들자는 각오 아래 탄생한 차가 GT40이다. 전설은 얹힌 이야기 하나하나 모두 흥미롭다. GT40이라는 이름도 그렇다. GT40은 2005년 GT라는 이름으로 부활했다. 그런데 이름에서 숫자는 빠졌다. 40은 차의 높이(40인치, 경주차 규정에 맞췄다)를 가리킨다. 부활한 GT는 40인치를 넘긴 데다 상표권 문제도 얹혀 이름에서 40이란 숫자가 빠졌다. 부활한 GT는 10만 달러가 넘는 고가임에도 2년 동안

4000대 이상 팔리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 박수 칠 때 떠나라는 말을 실천이라도 하듯, 미안박명이라는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또다시 전설의 차로 돌아갔다. 그러나 GT는 죽지 않았다. 단지 사라졌을 뿐이다. 2015년은 GT40이 르망에서 1~3위를 석권한 지 50년이 되는 해다. 이때에 맞춰 GT가 다시 부활했다. 2005년 재등장 이후 10년 만이다. 2015년 디트로이트 모터쇼와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 모습을 드러내며 부활을 기정사실화했다. 1월 등장 당시 GT가 나올 줄은 아무도 몰랐다. 그만큼 극비리에 개발을 진행했다. 비밀 유출을 막기 위해 디자인에도 단 여섯 명만 참가했다. GT는 정통 미드십 스포츠카다. 미국 차에 흔치 않은 구조라 존재감이 상당하다. 600마력이 넘는 3.5L V6는 7단 더블 클러치 기어박스와 결합한다. 막강한 파워, GT의 정체성을 그대로 물려받은 스타일 등 전설의 명성에 걸맞은 힘과 모양새를 갖췄다. 탄소섬유로 무게를 대폭 줄이고 앞뒤로 알루미늄 서브 프레임용 도입해 안전을 강화했다. 커다란 공기흡입구가 달린 보닛은 초대 GT의 맥을 잇는 동시에 공기역학 효과를 극대화한다. 성능이나 카리스마, 어떤 면에서도 포드의 최고 스포츠카 자격이 충분하다. 포드의 전설적 스포츠카는 부활을 통해 시대를 넘나든다.



2016 몬데오



TDCi 디젤 엔진



2016 포커스



2016 쿠가

The Era of Diesel, Ford Diesel Line up

세계 최고 기술을 합리적으로 내세우는 포드의 디젤엔진. 유럽 포드의 친환경, 고효율의 철학을 담은 포드의 디젤 라인업이 완성되었다. 몬데오, 쿠가, 포커스로 포드 유럽의 디젤을 만나본다.

Writer 김준선(자동차 칼럼니스트)

이런저런 불미스러운 소식이 있었다고 해서 디젤엔진의 장점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건 아니다. 단점을 줄이고 장점을 늘려가는 디젤 엔지니어의 노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어지고 있다. 포드 또한 마찬가지다. 얼핏 미국산 대배기량 엔진을 떠올리기 쉽지만, 포드의 라인업은 예부터 미국과 유럽의 두 축으로 나뉘어 발전해왔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유럽에서 갈고닦은 유럽 포드를 누구나 유럽 차라고 생각하는 이유다. 포드는 그동안 우리나라에 미국 라인업을 주축으로 소개해왔다. 익스플로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없어서

못 파는 SUV 시장의 인기 모델이고, 머스탱은 모든 남자가 한 번쯤 꿈꾸는 드림 카다. 그런 가운데 포드는 '원 포드(One Ford)'라는 이름의 새로운 전략에 따라 그들의 또 다른 채널, 유럽 포드의 장점을 미국 포드와 하나로 묶으려 한다. 올 3월에는 미국식 실용 세단으로 개발해 유럽에서 나온 자란 몬데오를 들여왔고, 11월부터 연말에 걸쳐 같은 원 포드 전략 아래 탄생한 쿠가와 신형 포커스 디젤이 유럽에서 건너온다. 몬데오는 짙한 새시와 넉넉한 실내 공간을 자랑하는 포드의 대표적 세단이다. 미국식

실용성은 기본이고 안전과 성능을 더했다. 2.0L TDCi 디젤엔진을 통해 최고 출력 180마력, 최대 토크 40.8kg·m를 뽐낸다. 출력이란 토크든 1600kg짜리 세단을 끌기에 넉넉한 수치다. 특히 아주 낮은 엔진 회전 영역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힘이 시종일관 운전자를 미소 짓게 한다. 그뿐 아니다. 유럽에서 다진 탄탄한 하체를 통해 끈직한 핸들링을 자랑하며, 포드 특유의 강성 높은 차체가 믿음직한 주행 감각을 선사한다. 이 정도 구성이면 스포츠 드라이빙을 즐길 수 있는 수준. 하지만 포드는 몬데오의 즐거운 면모를 굳이 내세우지



2016 쿠가



2016 포커스



2016 쿠가



2016 몬데오

않는다. 그저 패밀리 세단으로 소개할 뿐. 하나하나 일일이 강조하지 않고 의외의 성능을 다소곳이 머금은 점 또한 포드답다. 안전 성능도 차고 넘친다. 포드가 최초로 개발한 팽창형 안전벨트를 뒷좌석에 적용했다. 사고 시 순식간에 안전벨트가 부풀어 올라 에어백 역할을 하는 기술로, 탑승객의 충격을 흡수하고 사고 영향을 최소화한다. 초고 강성 스틸 구조의 차체는 드라이빙 성능뿐 아니라 안전 성능도 높여준다. 유럽 신차안전성능평가인 NCAP의 충돌 테스트에서 최고 등급(5스타)을 획득했다. 쿠가는 포드식 실용주의로 가득 찬 도시형 SUV다. 그렇다고 요즘 자동차 시장에 가득한 '무늬만 SUV'는 결코 아니다. 세련된 도시형이지만 험로에 대한 대비책도 갖춘 점이 대륙 태생의 자동차답다. 엔진은 몬데오와 같은 고성능 디젤 유닛. 여기에 6단 듀얼클러치를 물리고 네 바퀴를 굴린다. 구동 논리는 포드의 새로운 지능형 차체 제어장치인 올 휠 드라이브 시스템이 맡는다. 지형과 상황에 따라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네 바퀴에 힘을 공급한다. 단순 네 바퀴 굴림일 뿐 아니라 어떤 지형과 노면 상태에서도 접지력을 유지하며 탈출 방법을 고안해내는 본격 SUV란 뜻이다. 그럼에도 연비는 소형차 수준. 연비가 하향 조정된 신연비 방정식을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SUV로서는 매우 뛰어난 리터당 13km(신 연비 방정식 기준)를 달린다. 안전과 편의 장비도 출중하다. 두 손에 쇼퍼백을 가득 들고도 발 동작만으로 자동으로 테일 게이트를 여닫을 수 있고, 버튼만 누르면 알아서 주차해준다. 차선 이탈 방지 장치 등 포드의 최신 사고 예방 기술도 듬뿍 담았다. 중 소형 수입 디젤을 논할 때 포커스를 빼놓을 수 없다. 쟁쟁한 라이벌이 가득한 치열한 시장에서 유럽 태생 브랜드와 맞붙는 포드 모델이기 때문이다. 시선을 세계시장으로 넓혀도 포커스의 가치는

확실하다. 라이벌들과 복잡하게 겨룰 것 없이 한 가지 타이틀이 이 차를 명쾌하게 설명해준다. 바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라는 사실. 2년 연속 글로벌 베스트셀링 카에 뽑혔다. 포커스의 가장 큰 이점은 패키징이다. 실내 공간을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설계한 최소한의 차체 사이즈가 매우 정교하다. 운전하기 좋은 사이즈에 실내 공간은 넉넉하다는 뜻이다. 국내에도 2013년부터 출시해 큰 인기를 끌어난 포커스는 최근 부분 변경 모델이 등장했다. 2014년 제네바 모터쇼를 통해 처음 공개한 뉴 포커스 디젤은 차분하게 다듬은 외관이 돋보인다. 차체의 전면과 후면을 완전히 뜯어 고쳐 중후하고 날렵한 인상을 완성했다. 기능성이 향상된 인테리어도 압권이다. 8인치 고해상도 터치스크린과 2세대로 발전한 포드 고유의 음성 인식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SYNC를 추가했다. 세계 최정상급 연비를 자랑하면서도 출중한 출력의 듀라토크 TDCi 1.5L 디젤엔진 또한 자랑거리다. 변속기는 6단 듀얼클러치. 두 핵심 부품의 최적화된 주행으로 연료 소모뿐 아니라 이산화탄소 배출량까지 획기적으로 낮춘다. **지금 이 순간에도 포드의 영국 공장에서는 30초당 하나씩 포드 엠블럼이 달린 디젤엔진이 만들어진다. 세상에서 가장 많은 디젤엔진을 생산하는 브랜드 중 하나다. 이러한 포드의 디젤은 디젤엔진 역사와 함께해왔다. 독일을 주축으로 하는 유럽 태생 몇몇 브랜드가 디젤엔진을 주도해온 것처럼 오해하기 쉽지만, 그렇지만은 않다는 뜻이다. 오랜 노하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포드 모델뿐 아니라 한때 한식구였던 재규어와 랜드로버에도 사용되고 있다. 포드는 유럽에서 이미 2014년 3백만 번째의 소형 저탄소 1.5L TDCi 디젤엔진을 생산해냈다.**

또한 94g/km의 등급 최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자랑하는 1.6L TDCi 디젤엔진과 고성능 2.0L TDCi 디젤엔진까지의 생산량을 생각한다면 시장점유율은 가히 최고라 할 수 있다. 포드 디젤엔진의 장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디젤 특유의 경제성과 진득한 토크에 더해 휘발유 엔진 수준의 반응성을 갖췄다는 점이다. 포드가 드라이빙 다이내믹스와 부르는 역동성에 대한 가치가 디젤엔진에 반영된 결과다. 연비와 뒷심이라는 디젤엔진의 장점에 반응성이라는 휘발유 엔진의 장점을 녹여낸 것. 휘발유와 디젤 양쪽 엔진 모두에 대한 수준 높은 기술력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또 다른 장점은 경제성이다. 모델 T로 대표되듯 포드가 내세우는 핵심 가치는 예부터 누구나 접근하기 쉬운 자동차였다. 첨단 기술과 재료를 장착한 디젤엔진 또한 예외일 수 없다. 예컨대 포드의 모든 디젤 모델은 등급 최고의 출력과 연비, 최대치의 토크, 최저의 공해물질 배출을 자랑하면서도 가격대가 합리적이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누구나 손에 넣을 수 있도록 공급하는 것이다. 엔진을 포함한 부품의 가격이 낮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 최고의 기술을 합리적으로 내세우는 포드의 가치가 이렇게 드러난다. 포드의 영국 던턴 기술개발센터에는 1만6000명이 넘는 엔지니어가 근무하고 있다. 그중 절반 조금 넘는 인원이 디젤엔진 개발을 전담한다. 그들은 오늘도 포드의 디젤엔진을 위해, 그리고 인류의 자동차 기술 향상을 위해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본고장 유럽에서 나고 자라 전 세계를 달리는 세계 최고의 포드 디젤엔진을 우리나라에서도 만날 수 있다. 몬데오와 쿠가, 새로운 포커스 디젤을 통해.



New Face, New Heart

2016 뉴 익스플로러가 새로운 얼굴, 새로운 심장을 탑재하고 돌아왔다.

디자인은 대대적인 변화를 거쳤고, 편의 장치는 더욱 풍성해졌으며,
보다 강력해진 2.3L 에코부스트 엔진을 장착했다. 지난 9월에 열린

2016 뉴 익스플로러 출시 행사에서 이 모든 것을 직접 확인했다.

Editor 강미라

변함없는 위상, 업그레이드된 기능

2016 뉴 익스플로러가 출시됐다. 지난 9월 14일, 포드 대치 전시장에서 이를 최초로 선보이는 행사가 열렸다. 이번 행사의 콘셉트는 2016 뉴 익스플로러의 진정한 매력을 선보이기 위해 '도시와 자연을 아우르는 SUV'로 정했다. 실제로 익스플로러는 고객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충족하는 프리미엄 SUV로서 명성이 높다. 1990년 미국에서 처음 출시한 이후 전 세계에서 700만 대 이상 판매됐다. 국내 대형 SUV 시장에서도 베스트셀링 모델이다. 이러한 위상답게 이번 행사장은 미디어를 포함해 2016 뉴 익스플로러의 새로운 모습을 확인하려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현장에서 만난 2016 뉴 익스플로러는 대대적으로 달라진 디자인이 단연 눈에 띄었다. 한결 터프해진 라디에이터 그릴, 상향 배치한 LED 어댑티브 헤드램프가 간결하면서도 강한 직선을 강조했다. 루프랙과 리어 스포일러도 새롭게 디자인했으며, 사이드 측면도 더욱 세련되진 듯했다. 20인치 신형

알루미늄을 장착한 것도 특징. 차체는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견고하게 디자인했다. 초강성 보론 소재의 프론트 범퍼 빔과 하이드로포밍 프론트 프레임, 고강도 측면 충돌 튜브까지 갖춘 '삼위일체형' 3중 안전장치를 적용했다. 좀 더 가까이에서 살펴봤다. 익스플로러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할 수 있는 압도적인 크기의 실내 공간은 여전했다. 버튼 하나로 3열 좌석을 접거나 펼칠 수 있는 파워폴드 기능도 마찬가지. 통풍 시트를 기본으로 장착했으며, 간단한 마사지 기능까지 탑재한 멀티 컨투어 시트는 동급 모델에서 유일하게 제공하는 것이다. 2열에는 안전벨트 에어백이 있으며 3D 내비게이션, 블루투스 핸드프리도 완벽했다. 발로 차는 듯한 간단한 동작으로 리프트 게이트를 여닫을 수 있는 핸드프리 리프트 게이트는 작동할 때마다 놀라운 기능 중 하나였다.

2.3L 에코부스트 엔진으로 강력해진 파워

웅장한 크기의 대형 SUV, 익스플로러에 지형 관리

시스템은 화룡점정이다. 노면 상태와 주행 환경에 맞게 다이얼을 돌리면 차체 제어 기능을 바꿔준다. 도심에서나 오프로드에서나 탁월한 승차감을 선사한다. 눈 깜박임보다 약 20배 빠르게 지형 조건을 평가하는 지형 관리 시스템은 핸들링과 견인력을 제공하는 인텔리전트 4WD와 결합했다. 동급 유일의 어드밴스드 액티브 파크 어시스트는 2016 뉴 익스플로러에 새롭게 탑재된 기능으로 평행 주차, 수직 주차, 파크 아웃 어시스트 기능을 포함한다. 이 기능은 기어 레버를 조절하고 브레이크와 액셀러레이터 페달만으로 비좁은 평행 주차 공간도 부담이 없다. 또 사각지대 정보 시스템(BLIS)은 주차 및 주행 중에도 차량 주변에 있는 장애물을 감지해 알려준다. 이날 출시 행사에서 강조한 2016 뉴 익스플로러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엔진'이었다. 익스플로러에 최초로 탑재한 2.3L 에코부스트 엔진이 그 주인공. 직분사 터보엔진이다. 첨단 트윈 터보차저 시스템과 가솔린 직분사 기술이 조화를 이뤄 대형 SUV에

요구되는 강력한 힘을 내뿜는다. 274마력의 강력한 파워는 물론 기존 3.5L 모델 대비 15% 이상 향상된 최대 41.5kg · m의 높은 토크를 발휘한다. 또 셀렉트 시프트 6단 자동변속기,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떼지 않고도 안정적으로 변속기를 제어하는 변속 패들을 기본형으로 탑재했다. 보다 안정적이면서 민첩한 기어 변경이 가능해졌다. 이날 정재희 포드코리아 대표이사는 "올 8월까지 2500대의 이상의 판매량을 기록한 익스플로러는 오늘 공개하는 2016년형 모델도 수입 대형 SUV 시장에서 경쟁자를 압도하는 리더로서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경쟁자를 압도하는 첨단 사양과 퍼포먼스 등으로 기대 이상의 변화를 보여준 2016 뉴 익스플로러와의 첫 만남. SUV 애호가를 비롯한 익스플로러 팬에겐 더할 나위 없이 큰 설렘을 안겨준 시간이었다. 도로 위에서 이 새로운 얼굴을 마주하길, 새로운 심장을 경험하길, 다시 한 번 고대하게 하는 시간이기도 했다.

선입견을 뒤집는 예견된 반전

익스플로러는 동급 SUV 중에서도 베스트 셀링 카로 명성을 쌓아온지 오래다. 대형 가솔린 SUV라는 선입견에 반전이 이뤄지면서 숨어 있던 장점이 크게 부각됐다. 완성도와 상품성이 높은 차는 언젠가 인정받는 날이 오기 마련이다.

Editor 김민정 Writer 지현성(자동차 칼럼니스트)

Photographer 류창렬 Retoucher 김권석

자동차에 대한 평가는 종이의 앞·뒷면 같은 관계다. 장점이 곧 단점이고, 단점이 곧 장점이다. 하나의 사실도 해석에 따라 평가가 정반대로 나뉜다. 작은 차는 실내가 좁아 불편하다는 평이 나오지만 작아서 기동성이 좋다는 평도 나온다. 큰 차는 실내가 넓어 쾌적하지만 좁고 복잡한 도로에서는 운전이 불편하다. 가속이 뛰어난 스포츠카는 짜릿한 쾌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지만, 불안해하는 사람도 있다. 다양한 평가가 나올 수 있지만 어느 한 면으로 평가가 쏠리면 선입견이 된다.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SUV는 디젤이 진리로 통한다. 가솔린 SUV는 별종 취급을 받는다. 크기까지 크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선입견 때문에 입지는 더욱 좁아진다. 그런데 대형 가솔린 SUV에 대한 선입견을 깨는 차가 있으니 바로 포드 익스플로러다. 부정적인 내용만 적힌 종이 앞면만 보다 장점이 가득 적힌 뒷면을 보기라도 한 듯 선입견에 반전이 일어난다. 익스플로러는 국내 수입 차 시장에서 잘나가는 SUV다. 덩치 큰 가솔린 SUV인데도 SUV 중 두 번째로 잘 팔린다. 올해에만 10월까지 3000대 넘게 팔렸다. 동급 중에서는 압도적인 차이로 1위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번 종의 이번이다. 하지만 달리 보면 아주 당연한 현상이다. 실내 공간 넉넉하고, 힘 좋고, 조용하고, 가격 대비 효율적인 차를 마다할 리 없다. 차체가 크니 운전이 불편하고, 힘이 모자라고, 비싸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선입견이 진면목을 가린 것뿐이다.

2016 뉴 익스플로러는 2011년에 선보인 5세대 모델의 페이스리프트다. 그런데 첫인상은 폴 모델 체인지 같다. 전면부가 살짝 바뀌어 완전히 새 차 같은 느낌이다. 그릴에 변화를 주고 헤드램프의





각을 살리면서 인상이 단정하고 강인해 보인다. 집게처럼 생긴 안개등도 독특한 표정을 만든다. 이전 모델이 미래적 느낌이 강했다면 뉴 익스플로러는 차분하고 현실적인 면모를 드러낸다. 옆모습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뒤쪽 리어 램프의 내부 램프도 구성이 바뀌었다. 익스플로러는 거대하다. 길이는 5m가 넘고 폭은 2m에 육박하는 우람한 덩치다. 위압적인 동시에 익스플로러 특유의 카리스마를 뽐낸다. 옆모습은 은근히 날렵하고 매끈하다. 좁은 그린 하우스와 경사를 준 C필러와 D필러 덕분에 역동적 분위기를 자아낸다. 실내 공간의 넉넉함은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 밖에서 보는 크기의 여유가 고스란히 실내로 이어진다. 1, 2열 모두 널찍하다. 3열도 있는데 겨우 엉덩이를 기댈만한 여느 SUV의 3열과는 달리 성인 어른도 편히 앉을 수 있는 완벽한 3열 구조라는 것이 놀랍다. 3열은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단번에 바닥으로 몸을 숨긴다. 594L에 달하는 트렁크 공간이 만들어진다. 2열까지

접으면 공간은 2300L로 늘어난다. 워낙 넓어서 아마 사람 두 명이 들 수 있는 물건 중에는 놓지 못할 것이 없지 않을까 싶다. 실내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이전 느낌 그대로다. 큰 틀은 변하지 않고 스티어링 휠 버튼이나 센터페시아 버튼 구성 등 세부적인 부분에 일부 변화를 줬다. 계기반 양쪽에 자리 잡은 디스플레이와 센터페시아 모니터를 통해 각종 기능을 실행하는 구성도 이전과 같다. 전체적으로 단정하고 무난하다. 소재의 질감이나 배색은 차분하다. 이번 신모델의 가장 큰 변화는 엔진이다. 2.0L 에코부스트 엔진의 배기량이 2.3L로 커졌다. 출력은 243마력에서 274마력으로 커졌다. 3.5L TiVCT 모델도 계속 나오는데 2.3L와 힘 차이는 그리 크지 않다. 3.5L V6의 최고 출력은 294마력, 최대 토크는 35.3kg · m, 2.3L 에코부스트 모델은 274마력, 41.5kg · m다. 출력은 V6보다 20마력 작지만 토크는 더 크다. V6와 파워 면에서 대등해진 동시에

파워트레인 구성도 같아졌다. 이전의 국내 2.0L 모델은 앞바퀴를 굴렸다. 네 바퀴 굴림은 V6에만 적용했다. 그런데 이제 둘 다 네 바퀴를 굴린다. 변속기는 6단 자동변속기를 쓴다. 5세대 모델이 나오면서 익스플로러에 2.0L 엔진을 처음으로 장착했다. 당시에는 가히 충격이었다. 큰 덩치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2.0L 에코부스트 엔진도 큰 불만은 없었다. 익스플로러의 큰 덩치를 이끄는 데 부족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을 정도로 제 역할을 해냈다. 2.0L도 적절하다는 느낌이었는데 2.3L 엔진은 여유롭고 힘이 넘친다. 3.5L V6를 타는 느낌과 비슷하다. V6가 자연흡기인 데 반해 2.3L는 터보라 초반에 밀어붙이는 토크감이 호쾌하다. 엔진 반응도 빠른 편이라 가속이 더욱 신속하게 느껴진다. 액셀 페달을 바닥 깊숙이 누르면 가뿐하게 쭉 뻗어나간다. 2.3이라는 숫자는 잊어도 될 정도로 배기량 이상의 여유를 전한다. 가속할 때 들려오는 엔진 소리도 듣기 좋다. 이런



대형 SUV에서 들을 수 있는 소리치고는 역동적이고 경쾌하다. 변속기는 변속할 때 살짝 여유를 두어 급격하기보다는 유연하게 단수를 오르내린다. 패들 시프트도 달려 있어 적극적으로 가속을 제어할 수 있다. 네 바퀴 굴림은 기본이다. 키와 덩치 때문에 급격한 움직임에도 기본적인 안정성은 우수하다. 스티어링 감각도 너무 험겁거나 조이지 않고 적당한 긴장을 유지한다. 차체는 바꾸고자 하는 방향으로 신속하게 잘 따라온다. 네 바퀴 굴림을 도입하면서 지형 관리 시스템도 함께 들어왔다. 모래, 눈, 빗길 등 비정상적 노면 상태에 적극 대처할 수 있다. 2.3L 엔진의 복합 연비는 7.9km/L(신연비 방정식 기준)다. 디젤에 비해서는 낮지만 요즘 연비는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주행거리가 짧으면 굳이 디젤을 살 필요 없다. 주행거리가 길어도 디젤의 비싼 차 값을 생각하면 가격 차이만큼 연비로 상쇄하기도 힘들다. 익스플로러가 가솔린인데도 인기가 좋은 이유 중 하나도 연비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

때문이다. 비슷한 크기의 수입 디젤 SUV는 대부분 익스플로러보다 가격이 비싸다. 단순히 기름을 아낄 목적이라면, 수천만 원 비싼 디젤 SUV를 사는 것보다 합리적인 가격의 가솔린 SUV를 사는 게 낫다. 익스플로러는 가성비를 높이는 안전·편의 장비도 강화했다. 그중 하나는 키를 몸에 지니고 트렁크 바닥에 발을 갖다 대면 자동으로 열리는 트렁크 도어다. 핸즈프리 리프트 게이트라 불린다. 키를 몸에 지니고 차 바닥 쪽에 발을 갖다 대면 트렁크가 자동으로 열린다. 양손에 짐을 들고 있을 때 편하다. 앞차와 갑자기 거리가 가까워질 때 앞쪽 유리에 붉은빛이 반짝거리며 경고하는 전방 충돌 경고 장치도 유용한 기능이다. 이 밖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사각지대 경고, 마사지 기능이 포함된 1열 시트, 전방을 비추는 180도 전방 카메라, 수직·수평 주차 보조, 후측방 경고, 뒷좌석 안전벨트 에어백 등 고급 장비가 꽤 많이 들어갔다. 가격을 낮추기 위해 떨어냈다는 느낌은 들지 않는다. 자동차 브랜드든, 모델이든 현재 상황이 계속

이어지지는 않는다. 잘 나가다 추락할 수도 있고, 바닥을 기다 치고 올라가기도 한다. 익스플로러는 대형 가솔린 SUV라는 불리한 조건 때문에 한동안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하지만 꾸준히 상품성을 높여가고 기다린 결과 전성시대를 맞이했다. 트렌드를 잘 타기도 했다. SUV가 한창 잘 팔리는 때고, 아웃도어·레저 붐이 일어 짐 공간이 큰 대형 SUV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그렇다고 비슷한 SUV 모두가 잘 팔리는 건 아니다. 유독 익스플로러만 인기가 높다. 비결은 가격 대비 높은 가치와 그동안 꾸준히 쌓아 올린 인지도 덕분이다. 종이의 앞·뒷면은 아주 가까운 거리다. 하지만 바닥에 떨어진 종이를 손대지 않고 뒤집는 일은 매우 어렵다. 선입견으로 가득한 불리한 조건이 적힌 면이 위에 있다면, 장점이 가득 적힌 아래 면은 뒤집기 전에는 좀처럼 보기 힘들다. 마치 뒷집 지고 종이 뒤집기 게임을 하는 것처럼 노력과 시도는 많이 하지만 뒤집으려면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일단 넘기기만 하면 보이는 것은 장점뿐이다.

2016 Explorer Exploration

2016 익스플로러는 많은 부분이 변했다. 보이는 곳,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보한 발전을 이뤘다. 꼭 알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많지만, 그중에서도 다섯 가지 포인트는 꼭 기억하자.

Writer 지현성(자동차 칼럼니스트)

1 2.3L EcoBoost Engine

익스플로러 변화의 핵심이다. 엔진 배기량은 2.0L에서 2.3L로 커졌다. 불과 300cc 늘었지만 그 차이는 꽤 크다. 출력은 243마력에서 274마력으로 커졌다. 직분사와 트윈 터보 같은 익스플로러의 3.5L V6 294마력에 육박하는 힘을 낸다. 최대 토크는 41.5kg·m로 3.5L의 35.3kg·m보다 크다. 배기량은 3.5L보다 작지만 힘은 대등하거나 더 강하다. 다운사이징의 모미를 살린 엔진이다. 익스플로러는 기본 체격이 크다. 배기량과 힘이 받쳐주지 않으면 큰 덩치가 허덕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2.3L 엔진 덕분에 빠르고 가볍게 움직인다. 3.5L V6 이상의 넉넉한 파워를 전달한다.

2 New Face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은 프런트다. 얼굴이 변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체감 변화가 더 크다. 그릴과 헤드램프, 범퍼 모두 바뀌었다. 각을 세우고 힘을 더해 강인한 남성미를 부각했다. 이전 모델이 미래적 느낌이 강했다면, 신형은 현실적인 분위기로 돌아왔다. 포드 고유의 가로 세 줄 그릴은 유지해 정통성을 이어간다. 표현 방식은 바뀌었지만 세 줄은 그대로다. 테일 램프 역시 변화를 주어 앞뒤 모두 새 차 분위기를 풍긴다.

5 Safety & Convenience

익스플로러는 안전·편의 장비를 대폭 강화했다. 전방 카메라는 진입로나 도로 또는 주차장을 드나들 때 앞쪽을 광범위하게 보여줌으로써 위험 요소를 인지할 수 있다. 사각지대 경고 장치는 사각지대에 차가 들어왔을 때 경고등을 점멸해 경고를 보낸다. 주행 중은 물론 주차 중에도 알려준다. 후측방 경고 시스템은 후진할 때 후방 교통 상황을 파악해 위험을 알린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자동으로 속도와 거리를 조절한다. 충돌 경고 장치는 앞차와 잠재적 충돌 위험성을 감지해 위험에 대비하게 한다. 앞차와 거리가 가까워지면 차 앞 유리에 빨간 경고등이 커진다. 운전자가 반응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때에는 자동으로 브레이크에 예비 제동을 건다. 액티브 파크 어시스트는 수평 주차는 물론 수직 주차도 가능하다. 액셀과 브레이크 페달만 조절하면 스티어링을 알아서 조절한다.

4 Hands Free Lift Gate

이스케이프에 처음 등장해 주목을 끈 기능이다. 키를 소지한 채 트렁크 바닥에 발을 차듯 갖다 대면 트렁크가 자동으로 열린다. 양손에 짐을 들고 있을 때 아주 유용한 기능이다. SUV는 짐 공간 활용도가 높다. 레저 활동이나 쇼핑 등을 하고 나서 많은 짐을 싣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이럴 때 트렁크 문이 자동으로 열렸으면' 하는 생각을 한두 번은 해봤을 것이다. 전통식으로 여닫히는 트렁크는 점차 보편화되고 있다. 핸즈프리 방식은 그보다 한층 발전한 방식이다. 단순히 유용한, 톡톡 튀는 아이디어다.

3 Massage Seat

익스플로러의 시트는 10방향으로 조절할 수 있다. 체격과 체형에 상관없이 몸에 딱 들어맞는 자세를 잡을 수 있다. 멀티 컨투어라 불리는 전동 조절식 앞좌석 시트는 마사지 기능을 집어넣었다. 장거리를 이동할 때 피로를 풀기에 제격이다. 동급에서는 유일하게 익스플로러만 갖춘 기능이다.

2016 포드 뉴 익스플로러와 함께한 윤홍천 피아니스트 건반 위의 방랑자

피아니스트 윤홍천은 배우 나문희를 좋아한다고 했다. 잘해야겠다는 욕망이 아니라 배우의 '속'이 고스란히 보이는, 그래서 시청자의 마음을 톡 건드리는 연기자라고 생각해서다. 자신의 연주에 대한 소망도 그러하다. 오늘 그의 목표는 완벽함이 아닌, 청중의 마음이다.

Editor 김은성 Photographer 류창렬 Hair&Make-up 주민구
Cooperation DAKS(02-3479-1364), DAKS GOLF(02-3467-8360),
BROOKS BROTHERS(1899-1818), ECCO(031-628-4800), SAMICK ART
HALL(02-517-1300)



피아니스트는 다 그런 걸까. 우아한 말투, 어떤 포즈를 권해도 “네, 그게 훨씬 좋겠네요”라며 미소를 보이는 배려심. 우리에게 첫인사를 건네듯 피아노를 한 소절 두드리자, 순간 촬영장의 공기가 달아졌다. 윤홍천은 국내보다 유럽 등지에 더 잘 알려진 피아니스트다. 특유의 겸손한 태도에 혹여 평범한 음악가로 오해받을 수도 있겠다 싶다. 열아홉에 독일 유학길에 오른 뒤 지금껏 비범한 음악 인생을 걸어왔는데 말이다. 뉴욕 필과 뮌헨 필 음악감독을 역임한 거장 로린 마젤은 특히 그를 아꼈다. 세상을 뜨기 전 그가 마지막 점찍은 피아니스트가 바로 윤홍천이다. 그의 슈베르트 독주 음반은 ‘독일인보다 더 완벽히 이해했다’는 평을 얻었다. 외국인으로서 처음으로 ‘젊은 예술가상’도 받았다. 독일 루프트한자 항공이 기내에 플레이하는 클래식 앨범 중 한국인 연주자의 앨범으로는 유일하게 포함됐다. 최고의 피아니스트라면, 매일 4시간 이상의 고된 연습이 그저 행복이기만 할까. 윤홍천은 어릴 적 누나의 피아노 연주를 악보도 없이 따라 치다 눈에 띄었다. 이후 꺾임 없이 승승장구했고, 늘 일등을 차지했다. 그런 그에게 피아노를 그만두고 싶은 적이 있었는지 물었다. 10대 때의 기억을 꺼내는 그. “한국 음악 교육은 콩쿠르 입상이 목표예요. 예중 재학 시절, 경쟁과 반복 학습에 질렸어요. 어머니들의 극성, 실기 점수를 공개하는 것… 그 속에서 음악의 즐거움이 휘발됐죠. 하루는 게임을 하다 왔는데 피아노가 잠겨 있었어요. 어머니는 ‘피아노 안 쳐도 돼. 그러면 너도 좋고, 우리 가족도 모두 행복해’라고 하셨죠.” 부모님은 항상 ‘네가 원하는 게 뭔지 알고 그걸 하면 돼’라고만 하셨다. 이후 유학을 떠났다. 늘 최고였기에 대학 때는 고만이 깊어졌다. 매양 사고만 치다 졸업 무렵에 독보적 스타일을 확립하는 학생들과 달리, 자신의 색깔이 희미하게 느껴질 뿐이었다. “네가 원하는 건 결국 네 속에 있어. 분명히 있으니까 믿어라. 다만 시간이 필요할 뿐이야.” 학생을 온전히 믿어주는 스승들의 기대에 매일 건반을 두드렸다.

“동양 연주자들은 테크닉은 좋지만 영혼이 없다는 평가를 받곤 해요. 물론 국내 시스템 때문에 표현력을 기르기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유학을 와서도 다른 문화에 대해 배타적인 학생들을 보면 안타까워요. 클래식은 서양 문화를 알아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잖아요. 제 경우, '겨울 나그네'의 가사를 독어로 읽은 뒤에야 슈베르트를 진심으로 받아들였어요. 작곡가가 쓰던 언어, 살았던 시간과 공간에 호기심을 가져야 해요. 여행도 중요하죠. 바흐와 모차르트가 걸었던 거리를 걷다 보면 그들의 인생을 깊이 느낄 수 있고, 그러면 연주의 결이 달라지거든요.”

이번 귀국은 '8인의 피아니스트'(11월 28일 예술의전당)를 위한 것이다. 그는 3년 전 스위스 베르비에 페스티벌 10주년 기념 공연 영상을 본 뒤 8인 공연을 꿈꿔왔다. 마르타 아르헤리치와 예프게니 키신, 랑랑 등 이 시대 최고 피아니스트 여덟 명이 피아노 여덟 대를 놓고 함께 연주하는데, 정말 장관이었다. 2014년 기획은 현실이 됐고, 그가 음악감독을 맡았다. 세계적인 교향악단과 협연하는 실력과 아티스트들이 국내에서는 큰 무대에 서지 않는 현실이 안타까웠고, 그가 직접 그들을 섭외하기로 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연주자들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흔쾌히 수락해서 고맙고 기뻐요. 어떤 곡을 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간을 비워주었죠. 사실 피아니스트들은 서로 어울릴 기회가 없어요. 연습하며 함께 밥 먹고, 일상적 잡담을 나누고, 공연 마치고도 늘 안부를 전하며 살게

된 것이 참 좋더라고요.”

이번은 두 번째 공연으로 김태형, 벤 김 등 젊은 연주자들이 한 무대에서 '춤'을 주제로 다양한 곡을 연주한다. 왈츠, 탱고, 발레, 뮤지컬 등을 위해 예술의전당의 피아노가 모두 불려나왔다. 독일 작곡가 헤르텐슈타인은 '8인의 피아니스트를 위한 협주곡'을 작곡해 악장마다 연주자 각각의 이름을 써서 헌정했다.

“한번은 어머니가 독일에 오셔서 함께 일주일 동안 여행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함께한 차가 포드였죠. 자동차에 대해 잘 모를 때지만, 승차감이 참 안정적이구나 생각했어요. 아우토반을 달릴 때의 청량한 느낌이 지금도 떠올라요. 저는 자동차를 타고 바깥 풍경을 바라볼 때의 기분을 정말 사랑해요. 차창으로 들어오는 미풍에 머리칼이 살랑거릴 때의 그 행복한 느낌, 다들 아실 거예요.” 연주자는 자의든 타의든 여행자가 된다. 청중이 있다면 지구의 끝이라도 달려 가고 싶은 사람들이다. 윤홍천에게는 연주 일정도 여행이다. 쉴 때는 산책과 여행을 적극적으로 즐긴다. 여행 스타일은 즉흥적이고 자유롭다. 하염없이 걷다가 문득 마주친 황홀한 풍경에, 미스터리한 골목길에 매료될 때 기억은 아로새겨지고, 그 다채로운 느낌은 음악에도 반영된다. 첫 리사이틀의 타이틀이던 '방랑자'라는 단어처럼, 삶과 감각과 건반 사이를 방랑하는 게 좋다. 그답게 자동차 취향도 무척 심플하다. “친구 여럿을 태우고 짐도 잔뜩 넣고 여행을 떠날 때

적당한 자동차가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만약 차를 사게 된다면 무조건 SUV겠죠. 포드 뉴 익스플로러도 정말 마음에 들어요.”

그에게 성공하고 싶은지 물었다. “음…” 하며 잠시 말을 고르기에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은지” 고쳐 물었다. 윤홍천은 안단테의 속도로 이야기를 풀어놓는다.

“인생의 모든 요소를 다 바쳐 성공을 얻어내는 사람, 지금 하는 일을 충실하게 즐기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후자예요. 남들이 우러러볼 만한 고가의 차가 아니라 라이프스타일이나 미적 감각에 딱 맞는 차가 행복감을 주는 것처럼요. 한국의 유명 레이블에서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윤홍천의 스토리는 뭐야?' 녹대보호재단을 만든 환경운동가인 피아니스트 앨런 그리모, 바이올리니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처럼 대중에게 회자되기 좋은 요소를 갖춰야 한다는 거였죠. 당시엔 충격을 받았어요. 하지만 연예인이 되고 싶어 음악을 하는 게 아니니까. 저는 피아노에 집중하기를 원해요. 청중의 마음을 움직이는 음악가로 산다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홍보 문구는 관심 없다. 그보다는 1770년에 쓰인 모차르트의 일기를 읽는 것이 더 흥미롭다. 스포트라이트보다는 사람들의 마음을 비춰주는 밤의 달빛을 바라보는 것을 좋아한다. 그렇게, 윤홍천은 흔들림 없이 고요한 나날을 살아간다. 음악이 그에게 가르쳐준 삶의 태도다.





만인을 이롭고 즐겁게 하라

스마트 & 다이내믹 SUV, New KUGA 디젤

포드 유럽의 미래지향적인 디젤 SUV, 쿠가가 드디어 국내에 상륙했다. 포드의 다양한 모델에서 입증된 디젤엔진을 얹어 효율성이 좋고, 다부지게 내달리는 쿠가. 포드코리아의 첫 디젤 SUV는 남다른 디자인과 실내 공간, 안락하면서 다이내믹한 주행 감각으로 모든 이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하다.

Writer 이병진(자동차 칼럼니스트)



요즘은 스마트함을 추구한다. '똑똑하고 영리하며 깔끔하고 맵시 좋은'이라는 단어 의미 이상을 요구한다. 인기 좋은 자동차에는 스마트한 매력이 풍부하게 담겨 있다. 디자인, 효율성, 실용성 등 스마트한 요소가 다양할수록 베스트셀링 모델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포드 유럽 소싱 모델인 쿠가는 포드가 제대로 만든 스마트 SUV다. 게다가 국내에서는 처음 선보이는 포드의 첫번째 디젤 SUV다. 소비자는 이미 익스플로러를 통해 포드의 SUV 만들새를 충분히 경험했다. 익스플로러는 미국 소싱 모델이다. 하지만 원포드(One Ford) 전략으로 미국의 실용적이고 단정하면서 단단한 감각, 유럽의 정확하며 기계적 치밀함을 더해 완성한 포드의 대형 SUV에 많은 이가 칭찬하고 만족해했다.

새로운 SUV 쿠가 역시 작정하고 제대로 만들었다. 쿠가는 콤팩트한 차체지만 공간 활용성을 극대화했다. 겉모습에 날 선 에지와 굴곡을 조화롭게 넣어 독창적 디자인 카리스마도 챙겼다. 효율성과 출력 성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파워트레인과 유럽 차다운 세팅으로 운전 재미도 배가했다. 평일에는 복잡한 도심에서, 주말에는 자연을 찾아 교외로 떠나는 현대인에게는 운전이 쉽고 경쾌하며 다루기 수월한 SUV가 제격이다.

요즘 자동차 시장에서는 차 하나로 도심과 자연을 모두 즐길 수 있는 차, 출퇴근 때는 주로 혼자 타지만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집을 싣고 나들이를 떠날 수 있는 차를 원하는 사람이 많다. 이런 상황에서 쿠가는 국내에서 여전히 성장 중인 프리미엄 SUV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강력하고 참신한 무기다.

쿠가는 포드가 만든 유럽형 SUV다. '유럽 차'는 다부지고 단단하며 역동적이다. 차의 탄탄한 기본기와 운전 재미에 좀 더 신경 썼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쿠가는 움직임이 경쾌하고 반응이 적극적이다. 실용성과 재미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차라는 뜻이다.

이렇듯 매력적인 모델이라는 사실은 자료에서도 충분히 드러난다. 쿠가는 인텔리전트 AWD 시스템을 품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눈을 한 번 감았다 뜨는 것보다 20배 이상 빠른 속도로 도로 상태와 주행 상황을 반복적으로 분석한다.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각 바퀴에 전달되는 동력을 조정해 가장 이상적인 핸들링과 주행 성능을 선사한다. 세단이나 쿠페보다 차고가 높은 SUV지만 보다 안정적이면서 운전 재미가 탁월한 차로 완성하기 위한 포드의 노력 가운데 하나다.

쿠가는 포드의 야심작인 만큼 안정성과 편의 장비로 가득하다. 우선 유료 NCAP에서 실시한 충돌 보호 테스트에서 중형 SUV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인 88점을 받으며 최고 등급인 별 다섯 개를 얻었다.

새시에 초고강도 강철을 사용하고 파노라믹 선루프에 특별히 만든 보강 고리를 더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새시 강성과 내구성을 강화한 덕분이다. 기본적으로 안정성이 뛰어난 쿠가는 보다 치밀한 안전과 운전자 편의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동 주차 지원 시스템인 액티브 파크 어시스트와 액티브 시티 스톱, 차선 유지 보조 장치, 차선 이탈 경고 장치, 오토 하이 빔 헤드램프 등 다양한 장비를 채택했다.

쿠가는 겉모습부터 남다르다. 포커스에서조차 매력 요소 중 하나였던 커다란 프론트 그릴과 안개등을 품은 범퍼 하단 양옆 그릴이 날카롭고 시원한 눈매의 헤드램프와 만나 다이내믹하고 시크한 감각을 강조한다. 보닛 가운데에 두 줄짜리 날 선 에지를 더해 자칫 밋밋할 수 있는 앞모습에 포인트를 더했다. 부폰 펜더와 시원한 휠하우스, 블랙 무광 플라스틱 몰딩으로 펜더와 차체 아랫부분을 완성해 터프함도 물씬하다.

세련미를 강조한 쿠가는 넓은 실내 공간과 함께 다양한 용도로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뒷공간도 꼼꼼하게 완성했다. 핸즈프리 리프트 게이트 기능도 담았다. 양손 가득 짐이 있어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에서도 쉽게 리프트 게이트를 여닫을 수 있다. 사용법 또한 쉽고 간편하다. 뒷범퍼 아래를 발로 차는 듯한 동작을 취하면 끝이다. 뒷좌석 또한 한 번의 동작으로 180도 접거나 펼 수 있어 실내 공간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다.

포드가 쿠가에 쏟아부은 열정과 노력은 생각보다 크다. 패널과 패널 사이의 공간 폭을 0.5mm 이하로 설계해 단차를 거의 찾을 수 없다. 인테리어 또한 최대한 부드러운 소재의 고급스러운 마감재를 사용하고 직관적이면서 매력적인 계기반으로 감성 품질을 높여 남녀 모두에게 특별한 매력을 강조한다. 특히 리프트 게이트와 글로브 박스 같은 부분에 장착한 투박한 구성의 잠금장치를 없애 디자인 완성도와 사용 편의성을 키웠다. 파노라믹 선루프 덕분에 쉽게 누릴 수 없는 탁 트인 개방감도 만끽할 수 있다.

이제 파워트레인을 보자. 2.0L TDCi 듀라토크 디젤엔진을 품고 180마력의 최고 출력과 40.8kg · m의 최대 토크를 낸다. 배기가스를 줄이는 포드의 에코네틱 기술을 적용해 에코 모드, 기어 변속 표시 장치, 액티브 그릴 셔터 등의 장치를 채택,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포드의 진화와 변화의 폭은 무척 거세다. 유럽 포드의 차 만들새는 미국 차와 유럽 차의 장점을 한데 아우른다. 쿠가는 포드가 내놓은 첫 번째 디젤엔진을 품은 SUV다. 포커스 플랫폼을 공유해 다부진 움직임과 넉넉한 토크를 바탕으로 강력한 출력 성능을 품었다. SUV 특유의 버린 감각으로 운전이 쉬우면서 동시에 경쾌한 재미가 제대로 살아 숨 쉰다. 쿠가의 등장으로 남성은 물론 대형 SUV가 다소 버거웠던 여성들도 이제 포드 SUV의 특별한 매력을 더 쉽고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게 됐다. 쿠가가 만인을 이롭고 즐겁게 할 때가 온 것이다.



Focus Diesel Report

2016 뉴 포커스 디젤이 등장한다. 새로운 포커스 디젤의 매력적인 면면과 그 이면에 숨은 흥미로운 이야기를 숫자로 풀어보았다. 젊고 감각적인 스타일, 고효율 성능까지 갖춘 뉴 포커스 디젤은 2016년 당신의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될 것이다.

Editor 김미라

1

2016 뉴 포커스 디젤은 높은 연비 효율성을 발휘하며 1등급 국내 인증을 통과했다. 연비는 18.1km/L, 고속 20.8km/L, 도심 16.4km/L다. 동급 국산 자동차보다 효율성이 높다.

1.5

2016 뉴 포커스 디젤에는 1.5L TDCi 디젤엔진이 장착됐다. 기존에는 2.0L 엔진이었다. 앞서 말한 놀라운 연비는 이 같은 다운사이징에 기인한다. 참고로 2.0L 엔진의 2012년 12월 당시 승인된 복합 연비는 17km/L이었다.

1932

포커스의 히스토리를 끝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1932년에 생산한 '모델 Y'가 있다. 모델 Y는 포드가 사상 최초로 미국이 아닌 영국에서 개발하고 생산한 모델이다. 이 계보는 1939년 '앵글리아', 1968년 '에스코트'로 이어진다. 1967년에는 영국과 독일의 포드를 통합해 유럽 시장을 총괄하는 유럽 포드가 출범했다. 그리고 이듬해 영국과 독일 공장에서 탄생한 모델이 '에스코트 마크1'이다. 유럽을 중심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에스코트는 30여 년간 영국에서만 400만 대 이상, 전 세계적으로 900만 대 이상 팔렸다. 1981년, 포드는 독일에서 생산하던 연료 절약형 소형 해치백인 '피에스타'를 에스코트로 개명해 미국 시장에 내놓았다. 1990년대의 에스코트는 2.0 터보엔진을 올린 RS2000 코스워스 모델을 선보였는데, 이후 포드는 에스코트의 뒤를 이은 포커스를 내놓았다. 이처럼 유럽 포드는 중·소형차 세그먼트 시장에서 강력한 시장 지배력을 오래도록 구축하고 있다. 또 디젤이 대세인 유럽 시장에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발전한 덕분에 디젤엔진의 완성도는 그 누구도 쉽게 따라올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포커스 역시 독일 자를루이 공장에서 생산해 유럽산 디젤엔진을 장착하고 그 혈통을 이어가고 있다.

12,000,000

포커스는 1998년에 탄생해 지금까지 1200만 대 이상 팔렸다(2013년 기준, 세계 굴지의 시장조사 기관 IHS 오토모티브 산하 폴크가 최근 발표한 전 세계 신차 등록 자료). 포커스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다. 또 세계 주요 브랜드 단일 모델 중 판매량이 항상 10위권 안에 랭크되어 있으며 2012년, 2013년에는 2년 연속 전 세계 판매량 1위를 기록했다.

27.5

최신 디젤엔진 기술을 모체로 개발한 1.5L 엔진은 그 반응 성능이 압도적이다. 최대 토크 27.5kg·m, 최고 출력 120마력을 발휘한다. 기존의 2.0L 엔진에서 다운사이징한 1.5L 엔진을 얹었음에도 불구하고 배기량 대비 성능은 동급 차량과 비교해 매우 출중하다.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줄었다. 여기에 운전자 지원 기술까지 대거 장착해 운전이 재미를 더했다. 혼잡한 도로에서도 앞차와 일정 거리를 유지해주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불안정한 도로나 악천후 등의 상황에서 조향 성능과 정밀 제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전동 파워 보조 스티어링(EPAS)', 언덕에서 출발할 때 자동으로 작동함으로써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떼면 알아서 수 초간 제동력을 유지해 차가 뒤로 밀릴 걱정 없는 '힐 론치 어시스트(HLA)' 등이다.

12

원래 포커스는 포드 랠리팀의 마크를 붙이고 12년간 WRC(World Rally Championship)의 거친 무대를 맘껏 휘젓던 차다. 1999년 에스콧트를 대체해 WRC에 투입된 포커스 RS는 포커스의 최고 사양 스포츠 모델이다. 트윈 터보 300마력의 출력을 뽐내며 2010년까지 WRC에서 활동했다. 포커스의 WRC는 데뷔 해인 1999년 47회 사파리 랠리에서 첫 우승을 거두었다. 드라이버는 WRC의 전설인 콜리 맥레이. 12년 동안 포커스와 함께 WRC에서 활동한 드라이버들은 각 시대를 대표하는 선수들이었다. 카를로스 사인츠, 마커스 그로홀름, 마코 마틴, 미코 히르보넨 등이다. 1세대부터 3세대 모델이 활동한 포커스는 단일 차종 최장수 기록을 갖고 있다. 2011년 WRC 규정이 1600cc 휘발유 직분사 터보로 바뀌면서 은퇴했고, 그 자리를 피에스타 RS에 넘겨주었다.

6

2016 뉴 포커스 디젤의 액티브 그릴 셔터는 전동 날개 시스템을 회전시켜 기류를 차단함으로써 공기저항이 최대 6% 감소한다. 연료까지 절감되는 것은 물론이다. 탑재된 전방위 에어백 역시 여섯 개다. 만일의 충돌에 대비해 최대 여섯 개의 에어백을 장착함으로써 모든 탑승자를 보호하고 운전자의 자신감과 평정심을 지켜준다. 트랜스미션은 기존 모델과 동일한 습식 DCT 기반의 게트락 파워 시프트 6단 자동변속기가 채택됐다.

40

40km/h 미만에서 충돌 위험을 감지했으나 즉시 브레이크를 밟지 못할 경우 '액티브 시티 스톱(Active City Stop)'이 운전자 대신 브레이크를 작동해 충격을 피하거나 최소화한다. 센서가 미리 도로를 스캔하기에 가능한 일이다. 센서를 활용한 또 다른 기술은 기존 보다 훨씬 향상된 '액티브 파크 어시스트'. 알맞은 주차 공간이 발견되면 센서를 통해 알람이 울리며 어떻게 주차하면 될지 알려준다. 버튼을 누르면 차량에 부착한 초음파 센서가 최적의 수평, 수직 공간을 찾아 주차를 도와준다. 포커스의 자동 안내에 따라 가속페달, 브레이크, 기어만 조작하면 된다. 차가 차선을 이탈할 경우 스티어링 휠 진동을 통해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차선 이탈 경고 시스템'도 있다. 1차 경고 후에도 운전자가 반응하지 않을 때에는 스티어링 휠에 회전력을 줘 차선 중앙으로 차량이 이동하도록 유도한다.

5

2016 뉴 포커스 디젤은 유로 NCAP 최고 안전 등급인 5스타를 획득했다. 최첨단 안전 기술을 다양하게 장착한 덕분이다. 그중 유로 전자식 주행 안정 장치(ESP)는 악천후나 위험한 도로 조건에서 차량의 제어력을 향상시키는데, 안타-록 브레이크 시스템(ABS)과 더불어 미끄러짐, 오버스티어와 언더스티어 현상을 줄여준다. 차량 운행 시 매번 점검하기 어려운 타이어 공기압은 포커스 디젤이 대신 모니터링해주는 '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 기능도 있다. 공기압을 감소하면 운전자에게 알려주어 연비 향상까지 도와준다. '충돌 경고 장치 및 제동 보조 기능'은 전방 차량과 충돌이 예상될 때 차량 앞 유리에 일렬로 붉은빛이 깜박이고 경보음이 울린다. 만약 운전자가 반응하지 않을 경우 최대 제동 응답성을 위해 자동으로 브레이크에 예비 제동을 가한다.

4 or 5

2016 뉴 포커스 디젤은 4도어 세단과 5도어 해치백으로 출시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둘 다 키네틱 디자인을 적용했다. 전면부 디자인이 달라졌으며, 전체적인 디테일도 정교해졌다. 세련된 LED 테일 램프까지 더해졌다. 포커스는 정지해 있을 때도 달리는 듯한 익스테리어를 자랑한다. 보다 안정적인 주행감과 세련된 맛을 원한다면 세단을, 실용성과 개성을 중시한다면 해치백을 선택할 것. 특히 포커스 디젤 해치백은 엔진, 샤시 완성도가 뛰어나며 해치백답지 않은 단단함과 우수한 고속 안정성을 갖춘 포드의 수작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길이 열렸다. 모세가 바다를 가르듯 평일 오후의 강변북로는 한산했다. 차들은 저마다 바람을 일으키며 동쪽으로 달렸고, 가로수의 제빛을 잃은 나뭇잎은 파르르 몸을 떨었다. 앞차를 쫓아가며 속도를 올렸다. 사이드미러로 가드레일 옆에 수북이 쌓인 낙엽이 공중으로 떠올랐다 가라앉는 모습이 보였다. 나와 여자 친구는 낡은 서정시의 한 구절이나 김현철의 노랫말처럼 강변을 따라 섬으로 향했다. 포드 몬데오의 날카로운 눈매는 빠른 속도로 서울~춘천고속도로에 진입했다.

톨게이트를 지날 즈음 라디오에서 마룬파이브(Maroon 5)의 노래가 흘러나왔다. 나는 가사를 몰라 음만 따라 흥얼거렸고, 여자 친구는 가사를 검색해 따라 불렀다. 내가 마룬파이브야말로 가장 미국적인 밴드라 말하자 여자 친구가 미국적인 게 뭐냐고 물었다. 논쟁을 하자는 말투는 아니었다. 그녀는 큰 눈을 깜빡이며 귀엽게 물었고, 나는 이 차 같은 거라고 답했다. 그러니까 포드라는, 미국을 대표하는 자동차 브랜드를 언급한 것이다. 하지만 더 이상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못했다. 운전엔 집중한 탓이기도 하지만 몬데오를 포드답다고, 미국스럽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 그러니까 미국 중산층 가정의 차고 앞에 서 있는 덩치만 큰 차가 절대 아니다. 운전대를 잡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느낌은 명확해졌다. 몬데오는 강렬한 2.0 TDCi 디젤엔진이지만 라디오의 음악을 제외하곤 귀에 거슬리는 소음이 없다. 꼼꼼한 마감을 통한 풍절음 단절과 차 밑에서 올라오는 잡음, 보닛에서 흘러 들어오는 소음조차 제거했다. 디젤 차량치고는 매우 정숙하다. 알고보니 몬데오의 디젤엔진은 완성도 높은 유럽산이다. 그뿐 아니다. 실내는 세련되고, 첨단 편의 장치는 직관적이고 간결하다. 다양한 수납공간은 실용성까지 만족시킨다. 그리고 손에 닿는 촉감은 고급스럽다. 여자 친구는 여전히 나의 대답을 기다리는 눈치였다.

“그러니까 첨단 기술을 세련된 디자인으로 포장하는 거지. 아이언맨이나 애플처럼 첫눈에 반하게 하는 매력으로 말이야.”

여자 친구는 ‘그럼 몬데오가 날 닮은 거냐고 재차 물었고, 나는 ‘몬데오가 더 날카롭게 생겼다’고 말했다. 몬데오는 동급 최초로



섬으로 가는 길

가을의 막바지, 포드 몬데오를 타고 청평호 주변을 내달렸다. 전시를 보았고, 이국적인 장소에서 아메리카노와 라테를 두고 무엇을 마실지 고민했다. 미국에 대한 기묘한 논쟁을 하기도 했다. 섬으로 가는 길이었다.

Writer 조진혁<아레나 옴므 플러스> 피쳐 에디터) Photographer 류창렬 Retoucher 김관석



어댑티브 LED 헤드램프를 적용하면서 눈매가 바뀌었다. 몬데오의 앞모습은 애스턴 마틴을 떠올리게 하는데, 디자인을 총괄한 모레이 칼럼이 애스턴 마틴 디자인에 참여한 전적을 참고하면 쉽게 이해될 거다. 미국산 자동차이면서 유럽 분위기를 풍기는 이유를 말이다.

몬데오와 미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차는 북한강로에 진입했다. 좁은 도로 옆으로 청평호반이 펼쳐졌다. 갑자기 여자 친구가 사진을 찍고 싶다고 말했다. 강변에 자리한 가일미술관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가일미술관은 청평호반의 한가로운 풍경에 서정성을 더하는 공간이다. 미술 작품이 자연경관에 녹아들어 있는 가일 미술관은 건축가의 정성이 느껴지는 건물 자체도 미술 작품 같다. 우리는 미술관을 크게 한 바퀴 돈 다음 상설 전시를 관람했다. <목판으로 보는 세상>이라는 기획전이었다. 나무판에 밑그림을 그린 뒤 칼과 끌로 조각해 종이에 찍어내는 판화 형식의 목판화는 다량 복제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주로 출판물에 사용되었는데, 이후 순수 미술, 민중 미술 등으로 이어졌다. 현대미술에서 각광받는 장르는 아니지만, 판을 깎고 물감을 묻혀 찍어내는 작업 과정은 익숙한 모습을 떠올리게 했다. 동일한 엔진을 수천 개 만들기 위해 반복해 쇠를 깎는 장인의 모습, 자동차의 실루엣을 디자인하기 위해 나무를 깎고, 흙을 더하며 형상을 만들어가는 디자이너의 모습이 오버랩되었다. 목판화의 작업 과정은 집요함과 정직함의 반복이며, 자동차 제작 역시 이 같은 자세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다시 시동을 켜고 청평담으로 향했다. 사실 청평호는 핑계였다. 진짜 욕심은 가평 8경으로 꼽히는 호반 주변의 자동차 드라이브 코스였다. 산과 강 사이에 난 좁은 도로는 한적하고 구불구불 이어져 주행의 짜릿함을 만끽할 수 있다. 게다가 도로 양옆으로 줄지어 선 나무들이 아름다움을 더하며, 등고가 낮은 도로는 호수에 접해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레이싱 게임에 등장하는 유럽의 화려한 드라이빙 코스 못지않다. 그녀에게 꼭 잡으라고 말한 뒤 가속페달을 밟았다. 몬데오의 2.0 TDCi 디젤엔진은 최신 버전이다. 성능과 경제성이 여느 디젤엔진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다. 최고 출력은 180마력, 최대 토크는 40.8kg · m에 달한다. 멀티링크 리어 서스펜션으로 완성된 탁월한 핸들링을 만끽하며 부드럽게 청평호 주변을 달렸다. 6단 듀얼클러치와의 조합도 빼어났다. 부드럽고 정확하게 변속했다. 동시에 중형 세단이 갖춰야 할 덕목인 안정적인 승차감도 만족시켰다. 꽤나 매력적인 서스펜션이다. 물론 날카로운 스티어링 휠의 반응도 칭찬할 만한 부분이다. 묵직한 스티어링 휠이 정교하게 움직여



회전 구간에 대한 믿음을 선사했다. 75번 국도의 굽이진 길에 대한 자신감이 상승했다. 이때다 싶어 S모드로 변경했다. 패들 시프트를 사용하며 본격적인 주행을 시작했다. 스포츠카라도 모는 듯 전방에 시선을 빼앗긴 채 달리는데 비명소리가 들렸다. 아차 하며 속도를 늦췄지만 여자 친구의 표정은 이미 호수처럼 싸늘했다. 그녀의 표정 뒤로 때늦은 수상스키가 천천히 지나갔다.

여자 친구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뽀띠프랑스 앞에서 차를 멈췄다. 한국의 작은 프랑스 문화마을이라 불리는 곳이다. 건물은 모두 붉은 지붕의 프랑스풍으로 지었고, 길가에는 유럽의 골동품이 늘어서 있다. 생텍쥐페리의 《어린왕자》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마을이라, 동심을 자극하는 요소가 가득하다. 이곳의 수많은 건축물은 모두 갤러리와 박물관이라고 보면 될 정도로 볼거리가 풍성하다. 우리는 유럽에 온 어느 신혼부부처럼 다정하게 손을 잡고, 비스크 안형과 마리오네트 전시관을 둘러보면서 굳게 닫힌 그녀의 입이 열리기 시작했다. 150년 된 실제 프랑스 고택을 옮긴 프랑스 전통 가옥에 들어섰을 때는 그녀의 미소를 볼 수 있었다. 여자 친구는 엔틱 가구와 생활용품을 살펴보며 나중에 이런 곳에서 살고 싶다고 말했다. 뽀띠테라스에 올라 커피를 마셨다. 높은 언덕에 위치한 테라스로 청평호가 한눈에 보였다. 유럽의 어느 고성 앞에 자리한 노천카페에 앉은 듯 우리는 여유롭게 커피를 마셨다. 나는 아메리카노, 그녀는 라테.

어느새 해가 중천에 솟았다. 목적인 섬은 여기서 멀지 않다. 75번 국도에서 작은 다리를 건너 다시 북한강변로에 진입했다. 더는 속도를 올리지 않았다. 그녀와 싸우고 싶지는 않으니까. 대신 몬데오의 안정성과 효율성에 대해 설명했다. 뒷좌석에는 포드에서 최초로 개발한 뒷좌석 팽창형 안전벨트를 장착했다. 사고 시 두꺼운 벨트가 부풀어 올라 충격을 줄여준다. 그녀에게 뒷좌석이 더 안락하고 안전하다고 설명하자 “그래서?”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할 말을 잃은 나는 빨간 신호 앞에 정차했다. ‘오토스타트-스톱’이 시동을 켜다. 계기반을 보니 연비가 16.9km/L로 표시되었다. 복합 연비는 15.9km/L로 우수한 편인데, 정속 주행을 한 덕분에 효율이 더 높게 나왔다. 연비 효율을 높이기 위한 기능으로는 ‘액티브 그릴 셔터’도 있다. 고속에서 자동으로 라디에이터 그릴을 닫아 공기저항을 감소시키는 기능이다. 나는 달리는 내내 짓궂은 농담을 했다. 그리고 어느새 남이섬 선착장에 도착했다. 자동차는 배에 실을 수 없었다. 걸어서 선착장에 들어가야 한다. 선착장에 서서 멀리 남이섬을 보았다. 남이섬은 행정구역상 춘천에 속한다. 배를 타면 남이섬에 들어갈 수 있다. 몬데오는 잠시 쉬게 하고, 걸기로 했다. 드라마 〈겨울연가〉에 나온 메타세콰이어길, 은행나무길, 벚길, 자작나무길, 이슬길 등을 말이다. 문득 저 섬에서 되돌아오면 계절이 바뀌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11월의 절반을 달린 시점이었다. 몬데오와 함께.



Driving & Sailing

Hot Summer Christmas in Australia

흰 눈 대신 흰 모래사장, 털모자와 장갑 대신 비키니와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완벽한 드라이브 코스까지 갖춘 호주에서라면 꿈꿔온 크리스마스가 현실이 된다.

Editor 정예진 Cooperation 호주 관광청(www.australia.com)



1



2

1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불꽃놀이. 12월이 되면 더욱 화려하고 아름다운 불꽃을 쏘아 올린다.

2 12월 호주의 바다에는 산타 복장으로 서핑을 하거나 조정을 하는 사람이 많다.

한여름의 크리스마스 판타지

눈 내리는 한겨울의 크리스마스 대신 생경한 풍경의 크리스마스를 즐기고 싶다면 지금 당장 비행기 티켓을 끊을 것. 인도양과 태평양 사이에 위치한 크고 아름다운 섬 호주에서는 한여름의 꿈같은 크리스마스를 즐길 수 있다. 12월의 호주는 한낮의 평균기온이 26℃를 웃돈다. 평균일 뿐, 실제로는 당장이라도 바다에 뛰어들고 싶을 만큼 햇살이 강렬하다. 눈이 내리지 않는다고 해서 호주의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차분할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 호주 사람들도 유럽 못지않게 화려하고 성대한 연말을 보낸다. 크리스마스 다음 날인 26일은 쇼핑물에서 대폭 할인 판매하는 복싱 데이(Boxing Day)이자 휴일로, 호주는 이 기간이 가장 큰 연휴다. 도시의 랜드마크 앞에 거대한 크리스마스트리도 세워지지만 그보다 볼만한 것은 검은 바다 위에서 펼쳐지는 불꽃놀이다. 시드니와 멜버른은 주말마다 불꽃놀이가 펼쳐지고, 한 해의 마지막 날이 되면 불꽃놀이는 절정을 이룬다. 시드니의 이 불꽃놀이는 달링 하버 산타 페스트(Darling Harbour Santa Fest)의 이벤트 중 하나다. 11월 마지막 주에 시작되는 이 축제는 시드니를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흠뻑 젖게 한다. 12월이 되면 호주의 해변에는 수영복 차림에 산타 모자를 쓰고 서핑하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다. 작은 마을길을 따라 드라이브를 하다 보면 '산타 마을 꾸미기 대회'에 참가한 집들이 그 자체로 크리스마스트리가 되어 이색적인 마을 풍경을 만들어낸다. 이 밖에도 많은 행사가 치러지는 12월은 새해가 시작되기 전날까지 흥분되는 축제의 연속이다. 크리스마스카드에 그려진 풍경과는 다르지만 즐겁고 신나는 크리스마스인 것은 분명하다.



1, 6 12월이 되면 시드니와 멜버른은 주말마다 화려하고 눈부신 불꽃놀이가 펼쳐진다. 2 시드니 하버에서 시작되는 시드니-호바트 요트 레이싱은 크리스마스 시즌의 진풍경이다. 3 푸른 바다와 백사장에서 즐기는 한여름의 크리스마스 4 크리스마스의 열기를 이어갈 태즈메이니아 테이스트 페스티벌에 올라온 각종 해산물. 호주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날에 해산물을 즐겨 먹는다. 5 시드니 달링 하버에 세운 초대형 트리.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이곳을 중심으로 달링 하버 산타 페스트가 열린다.



여행자가 즐겨야 할 호주의 크리스마스 이벤트
크리스마스 시즌에 호주를 여행한다면 꼭 해봐야 할 일이 있다. 태양이 내리쬐는 해변가에서 선크림을 잔뜩 바르고 호주산 와인을 곁들여 바비큐 요리를 만들어 먹는 것이다. 특별한 것 없어 보이지만, 여행객에게는 꽤 의미 있다. 호주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때 해산물 바비큐를 즐겨 먹는데, 연휴 기간이면 바비큐용 새우가 없어서 못 팔 정도다. 바비큐 요리를 좋아하다 보니 호주의 해변과 공원 곳곳에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바비큐 시설을 마련해둔다. 그러니 진짜 호주 사람처럼 크리스마스를 즐기고 싶다면 해변의 바비큐 피크닉은 꼭 해볼 것. 한여름 복장으로 산타 모자를 쓰고 커다란 바비큐 포크를 든 채 찍는 기념사진은 크리스마스의 색다른 추억이 될 것이다.

수백 대의 요트가 펼치는 장관
복싱 데이에 호주 사람들이 몰리는 곳은 할인 폭이 큰 쇼핑몰 말고도 하나 더 있다. 시드니-호바트 요트 레이싱이 열리는 시드니 하버다. 크리스마스의 열기를 12월 31일까지 이어줄 이 요트 레이싱의 출발을 보는 것은 복싱 데이의 전통이다. 레이싱을 위해 바다를 가르는 수백 대의 요트가 만들어내는 풍경은 설경과는 또 다른 흰빛의 아름다움을 만들어낸다. 바람을 타고 물보라를 일으키는 요트들이 떠 있는 바다 풍경은 웅장하기까지 하다. 시드니 하버는 이 출발 장면을 보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로 북적인다. 여행객 역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크리스마스 시즌의 풍경이다. 결승점은 태즈메이니아 호바트로, 요트들은 12월 31일 결승점에 도착하게 된다. 요트들이 도착하면 태즈메이니아의 와인 축제가 한여름을 알리며 시작된다. 구경하는 것도 좋지만, 직접 요트를 몰거나 페리에 오르는 것도 호주에서 크리스마스를 즐기는 또 다른 방법이다.

크리스마스 축제를 쫓아 드라이브!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만끽하고 싶다면 레드 머스탱을 타고 호주 전역에서 벌어지는 크리스마스 축제를 쫓아 드라이브를 하는 것도 좋다. 11월 마지막 주에 시작되는 시드니 달링 하버 산타 페스트는 보통 크리스마スイ브까지 계속된다. 다양한 테마로 분장한 산타들을 만날 수 있는 축제다. 애들레이드에서는 크레디트 유니언 크리스마스 가장행렬(Credit Union Christmas Pageant)이 열린다. 이 행사를 보기 위해 매년 50만 명의 사람들이 애들레이드를 찾는다. 시드니를 비롯해 큰 도시에서는 산타 달리기(Santa Fun Run) 대회가 개최된다. 참가비를 내면 달리는 동안 입을 산타복과 산타 모자를 받을 수 있으며,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참가비는 전액 아동 자선 단체에 기부한다. 작년에는 2400여 명이 이 행사에 참가했다. 시드니와 멜버른에서는 공공기관의 건물에 빛을 쏘아 올려 건물을 화려하게 만드는 크리스마스 프로젝션(Christmas Projection)이 진행된다. 형형색색의 조명과 함께 배경음악이 깔리며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한층 돋운다. 멜버른에서는 크리스마スイ브에 도크랜드에서 캐럴 축제(Carols by

Candlelight)가 열린다. 촛불을 들고 캐럴을 부르는 행사로 아이들을 포함한 가족 모두 참여할 수 있다. 축제의 마지막은 불꽃놀이로 장식한다. 캐럴 축제 말고도 많은 도시에서 크리스마스 시즌 동안 수많은 불꽃놀이가 밤하늘을 수놓는다. 그야말로 호주는 12월 내내 크리스마스 축제의 열병을 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호주 드라이브 로드, 그레이트 오션 로드
호주 남동부 해안가를 따라 나 있는 약 200km의 도로, 그레이트 오션 로드. 호주의 관광 명소일 뿐 아니라 축제 전에 꼭 가봐야 할 곳으로 손꼽히는 세계적인 명소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자동차 광고를 통해 알려졌다. 멜버른에서 가까운 이곳이 유명한 이유는 바닷가의 절벽을 깎아 만든 도로의 풍경 때문이다. 도로 위에서 맞는 바닷바람과 깎아내린 듯한 절벽의 아름다움은 포드와 함께라면 더욱 완벽하게 느껴질 것. 그레이트 오션 로드의 유명한 포인트는 침식작용으로 바다에서 솟아오른 듯 우뚝 서 있는 돌기둥인 12사도다. 또 도로 곳곳에 'lookout'이라 쓰인 간판을 발견할 때마다 잠시 내려 풍경을 만끽해도 좋다.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호주의 많은 지역에서 '산타 마을 꾸미기' 대회를 연다. 각각의 지역이 정한 테마에 맞게 집을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꾸미는 것으로 도로 여행을 하는 중간중간 가장 아름다운 장식의 집을 찾아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Watch Match

워치와 자동차의 공통점은 수백, 수천 가지 부품이 완벽한 메커니즘으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포드 머스탱을 담은 단단하고 역동적인 크로노그래프 워치를 모아봤다.

Editor 정영조 Photographer 류창렬

30분 카운터는 미드나이트 블루로, 12시 카운터는 차콜 컬러로 입힌 미학적 디자인의 엘 프리메로 크로노마스터 1969. 지름 42mm 스텐 케이스에 50시간 파워 리저브가 가능하다. **제니스** 모나코 크로노그래프는 1969년에 탄생한 세계 최초의 사각형 방수 시계인 모나코 컬렉션의 초기 모델에서 영감을 얻었다. 3시와 9시 방향에 크로노그래프 창이 자리한다. **태그호이어**



스켈레톤 다이얼을 통해 크로노그래프의 기계적 아름다움을 관찰할 수 있는 클래식 퓨전 에어로 크로노그래프 킹 골드. 지름 45mm 킹 골드 케이스에 3시 방향의 스몰 세컨드, 9시 방향의 30분 카운터, 6시 방향의 날짜 창이 위치한다. 42시간 파워 리저브를 갖췄다. **위블로**

간결하고 클래식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클림튼 크로노그래프 43mm, 3시 방향의 디스플레이를 통해 날짜와 요일을 볼 수 있으며, 스틸 브레이슬릿으로도 만날 수 있다. **보메 메르시에** 스틸과 세라믹 소재로 스포티함을 살린 포몰러1 쿼츠 크로노그래프, 10분의 1초 크로노그래프 기능, 타키미터 스케일, 200m 방수 기능이 특징이다. **태그호이어**



클래식 자동차 경주 대회의 공식 타임 키퍼로 활동하고 있는 쇼파드에서 선보이는 밀레 밀리아 크로노그래프 워치. 지름 42mm 로즈 골드 케이스에 타이어 모티브의 블랙 러버 스트랩을 매치했으며, 타키미터 스케일을 장착했다. **쇼파드**





지름 46mm 다이얼의 압도적 위용을 지닌 트랜스 오션 크로노그래프 유니타임.
월드 타이머 기능을 갖춘 자사 무브먼트 칼리버 B05를 탑재했으며, 70시간 이상
파워 리저브가 가능하다. 크라운을 앞뒤로 돌리는 간단한 조작만으로 두 개의 시간대
조정이 가능하다. **브라이틀링**



스틸과 핑크 골드 소재가 조화를 이룬 지름
41mm 케이스의 디아고 벨로치시모.
브랜드의 로고를 새긴 베젤, 다이얼에
자리한 날짜 창, 50시간 파워 리저브가
특징이다. **불가리**
지름 41mm 핑크 골드 소재의 옥타곤
케이스와 기로세 패턴의 화이트 다이얼이
어우러진 로열 오크 크로노그래프.
인하우스 오토매틱 칼리버 2385를
장착했다. **오데마 피게**

Cooperation
AUDEMARS PIGUET(02-3449-5917)
BAUME&MERCIER(02-310-9028)
BREITLING(02-512-6088)
BVLGARI(02-6905-3340)
CHOPARD(02-6905-3390)
HUBLOT(02-2118-6208)
TAG HEUER(02-776-9018)
ZENITH(031-5170-1169)

Water Bomb & Oil Shield

차가운 바람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줄 견고한 수분 장벽이 필요한 요즘, 촉촉한 피부로 가꾸고 싶다면 부족한 수분은 채우고, 증발하는 수분은 꼭 잡아주는 것이 중요하다. 겨울철 피부 수분 관리를 위한 철저한 계획을 세워보자.

Editor 정예진 Photographer 류창렬

1 항산화 성분과 보습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된, 끈적임 없는 마린 하이드로 인텐스 세럼. **LIRIKOS** 2 옥수수 발효 추출물과 코코넛 오일 추출물이 수분을 공급하고 세포 재생력을 돕는 모이스춰라이징 로션. **가마르드 by ONTRÉE** 3 물을 사용하지 않고 천연 유래 식물 수액만으로 보습 성분을 꽉 채운 여튼 오아시스 크림. **KOY** 4 우유빛 에센스가 피부 속 깊이 수분을 채우고 손상된 피부를 개선해주는 향기로운 워터 에센스-모이스춰 바인더. **BELIF** 5 미세한 수분 입자가 비타민 C와 수분을 공급하는 알파인 베리 워터리 미스트. **PRIMERA**

수시로 건조함이 느껴질 때

사무실 등 난방기가 켜진 건조한 공간에 있다면 반드시 필요한

제품이 있다. 바로 수분 미스트다. '미스트'라는 이름 그대로

스프레이를 이용해 안개처럼 미세한 액체 방울을 뿌리는 제품으로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수분을 공급할 수 있다. 책상 혹은 손이 닿기

쉬운 곳에 두고 건조함이 느껴질 때마다 뿌리면 된다. 주의할 점은,

분사액이 피부에 완전히 스며들기 전에 손으로 만지면 안 된다는 것.

메이크업을 한 상태라면 얼룩이 생길 수 있다. 또 너무 가까이에서

뿌려도 물방울 입자가 뭉쳐 얼굴 위로 흐를 수 있다. 적당한 거리에서

살짝 뿌리면 메이크업을 망가뜨리지 않고 쉽게 피부에 촉촉한

수분감을 전달할 수 있다.

1 피부 색소 침착과 노화를 방지하며 유효 함유량이 높은 온천수로 만든 워터. **가마르드 by ONTRÉE** 2 세포 채액과 미네랄 밸런스가 유사한 심층수를 이용해 효과적으로 수분을 공급하는 마린 오리지널 딥시 미스트. **LIRIKOS** 3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며 진정 효과가 있어 붉은 기를 잡아주는 보태니컬 키네틱스 미스트. **AVEDA**

하루에 한 번, 수분 장벽 쌓기

피부의 수분 밸런스를 위해 매일 해야 할 일은 아침·저녁으로 깨끗이

세안한 뒤 기초 제품을 꼼꼼히 바르는 것이다. 미스트만으로는

피부 속까지 쫓쫓해지는 수분감을 느끼기 어려우니 매일 저녁

모이스춰라이징 제품 바르는 일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건성이나

지성 등 어떤 피부 타입이든 수분 공급이 중요하다. 세안 후 스킨에

적신 화장솜을 이용해 피부 잔여물을 깨끗이 닦은 뒤 수분 세럼이나

수분 크림으로 목마른 피부에 휴식을 주자. 각질이 많이 쌓인

상태라면 수분을 공급해도 효과가 떨어지니 일주일에 한두 번은

스크럽 제품으로 각질을 제거하는 것이 좋다.

4 발효한 인삼 성분과 수분 공급에 탁월한 히알루론산 성분이 48시간 동안 촉촉한 피부를 만들어주는 효 수분샘 멀티크림. **SOORYEHAN** 5 외부 수분까지 끌어들이는 효과가 있어 피부를 촉촉하게 해준다. 진정 효과가 있어 시원한 느낌을 전하는 워터린 젤 크림. **HERA** 6 자적나무 수액, 맥문동 등 추출물이 피부의 피로를 덜어주고 자극이 적으며 피부 수분 균형을 바로잡아주는 수유크림. **SULWHASOO** 7 시아버터를 함유해 겨울철 메마른 피부에 영양과 수분감을 동시에 공급하는 시어 라이트 컴포팅 크림. **L'OCCITANE**

일주일에 한 번, 손상된 피부를 위해

장시간 야외 활동을 하거나 제때 수분을 공급하지 못해 피부가

푸석하다면 좀 더 확실한 처방이 필요하다. 시트 타입 수분 팩이나

바르고 자는 슬리핑 팩이라면 기초 제품보다 한층 강력한 수분을

공급할 것이다. 시트 팩의 경우 너무 오랫동안 붙이고 있으면 오히려

피부의 수분을 빼앗길 수 있으니 권장 시간만 붙인다. 슬리핑 팩은

다음 날 아침 꼼꼼히 닦아내야 기초 제품이 피부 위에서 겹들지

않는다.

8 잠들기 전 일반 크림에 비해 좀 더 많은 양을 듬뿍 바르면 밤새 수분과 에너지를 채워주는 모이스춰 바운드 바이탈라이징 마스크. **AMORE PACIFIC** 9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마사지하듯 바르거나 잠들기 전 바르면 손실된 수분 보호막을 복구하는 드링크 업 오버나이트 수면 마스크. **ORIGINS** 10 젤 타입 마스크로 끈적임 없이 빠르게 흡수된다. 수분감과 함께 풍부한 영양을 공급하는 하이드로겔 마스크 알파인 베리. **PRIMERA**



1 건조함으로 인해 손상된 피부를 탄력 있게 가꿔주고 수분을 채워주는 그린티 시드 트리트먼트 오일. **AMORE PACIFIC** 2 피부를 촉촉하게 가꿔주며 안색을 개선해주는 이모르멜 디바인 오일. **L'OCCITANE** 3 100% 천연 유래 성분으로 자극이 적으며 피부 보습력을 강화해주는 자초 윤기 보습 오일. **HANYUL** 4 피부에 꼭 필요한 유분과 피지막을 만들어 수분을 잡아주는 플랜트스크립션 유스-리뉴잉 페이스 오일. **ORIGINS** 5 는 주위의 어린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는 파슬리 씨드 안티 옥시던트 아이 세럼. **AESOP** 6 녹차 씨 추출물이 효과적으로 수분을 공급하고 반들거림을 잡아주는 더 그린티 씨드 오일. **INNISFREE**

첫인상을 좌우하는 피부 수분감

TV를 보면서, 날씨와 상관없이 실내외 어디서든 윤기가 흐르는 연예인의 피부를 한 번쯤은 부러워한 적이 있을 것이다. 메이크업을 안 한 듯 촉촉하고 윤기 있는 피부는 어떻게 만드는 걸까? 수분감의 비밀은 바로 오일에 있다. 예전에는 유분기를 뺀 제품을 선호했지만 요즘은 오히려 기초 제품과 메이크업 제품에 오일을 한두 방울 섞어 쓰는 추세다. 약간의 오일을 섞어 쓰면 피부가 물기를 머금은 듯 촉촉해 보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첫인상을 좌우하는 것은 바로 입술. 제아무리 촉촉한 피부라도 각질이 일어난 입술을 그대로 두면 피곤하고 나이 든 인상으로 비치기 십상이다. 립 컬러를 입히기 전 각질을 가라앉힐 수 있는 제품을 바르고 수시로 영양을 공급할 것. 매트한 립스틱을 사용한 뒤 립밤을 바르면 컬러가 뭉칠 수 있으니 그럴 땐 뜨거운 물이 든 컵을 입 주위에 갖다 대 증기를 쐬다. 각질이 가라앉는 효과를 볼 수 있다.

1 메이크업 전에 사용하면 윤광 메이크업을 연출할 수 있다. 피부 깊숙이 수분을 공급하는 오일 세럼 매직 포뮬라. **HERA** 2 비타민 E 성분이 입술을 보호하고 코팅막을 씌워 수분을 잡아주는 립 세이버. **AVEDA** 3 입술에 수분을 공급하고 탄력을 높이는 에센셜 립 세럼 스틱. **SULWHASOO**

갈라지는 손과 발을 지키는 방법

손과 발 역시 겨울이 되면 눈에 띄게 건조해진다. 얼굴처럼 매일 기초 제품을 바르거나 팩을 하긴 어려우므로 더 쉽게 수분을 잃고 심하면 갈라지기까지 한다. 세심한 기초 제품 대신 즉각적으로 수분과 영양을 공급할 수 있는 목직함 크림 타입 제품을 이용하면 손과 발도 얼굴만큼 촉촉하게 가꿀 수 있다. 건조한 손은 상처를 입기도 쉽다. 직장인이라면 사무실에서 메모지를 다루는 것만으로도 쉽게 종이에 벤 상처가 남는다. 발은 샌들을 즐겨 신던 여름과 달리 가려져 있기에 소홀하기 쉽다. 하지만 겨울철 발 관리를 느슨하게 했다가는 계절이 바뀐 후 두 배 더 고생하게 된다. 샤워 후 풋크림을 바르는 것만으로 충분히 개선할 수 있으니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날씨뿐 아니라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건선이 생기기도 한다. 풋크림을 바를 때 가능한 한 자주 마사지를 한다. 일주일에 한두 번 손과 발에 크림을 듬뿍 바른 뒤 잠간 동안 비닐장갑을 끼고 있는 것도 간단하면서 효과적인 수분 공급 방법이다.

4 비즈 왁스와 시아버터 성분이 발을 보들보들하게 가꿔주는 리페어링 풋 크림. **가마르드 by ONTRÉE** 5 모로코산 유기농 아라칸 오일이 들어 있어 수분감을 오래 유지해주는 버터풀 풋 크림. **BEYOND** 6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으며 손 주름을 완화하고 거칠어진 피부를 촉촉하게 가꿔주는 공진향 핸드크림. **THE HISTORY OF WHOO** 7 끈적이지 않고 흡수가 빠르며 시아버터 성분이 손을 부드럽게 가꿔주는 마린 오키드 핸드크림. **LIRIKOS** 8 고농축 글리세린 성분이 마치 장갑을 낀 것처럼 손을 보호해주는 노르웨이전 포뮬러 풋 크림. **NEUTROGENA** 9 녹차의 유효 성분이 보습력과 안티에이징 효과를 지속시킨다. 흡수가 빨라 더욱 산뜻한 타임 레스폰스 인텐시브 핸드 리뉴얼 크림. **AMORE PACIFIC**

Cooperation

AESOP(1800-1987), AVEDA(02-3440-2905), AMORE PACIFIC · SULWHASOO · HERA · HANYUL · PRIMERA · LIRIKOS(080-023-5454), INNISFREE(080-380-0114), KOY(070-7405-2881), L'OCCITANE(02-3014-2950), NEUTROGENA(080-023-1414), ONTRÉE(080-547-7000), ORIGINS(02-3440-2783), THE HISTORY OF WHOO · BEYOND · BELIF · SOORYEHAN(080-023-7007)



Snow and Ice



눈과 얼음의 계절이다. 몸과 마음에 활기를 더해주는 음악이 절실한 때다. 빙판길을 조심조심 걸어야 할 때, 새하얀 슬로프를 미끄러져 내려올 때 듣기 좋은 팝 신보를 소개한다.

Editor 김은성 Photographer 류창렬
Cooperation Sony Music(02-530-0900), Universal Music(02-2106-2000)

1 Made in the A.M.

틴 팝 특유의 경쾌한 에너지는 겨울에 더욱 빛을 발한다. 오디션 프로그램 <더 엑스 팩터>에 각각 참가한 멤버들은 '그룹을 결성하라'는 조언을 들었다. 그렇게 결성된 원 디렉션은 순식간에 전 세계 최고의 보이밴드가 됐다. 15개국에서 동시에 1위를 차지하고 개시 3분 만에 공연 티켓이 매진되는 등 경이로운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Made in the A.M.>은 제인 말리크가 탈퇴한 뒤 4인 체제에서 나온 첫 앨범이다. 컨트리 어쿠스틱 팝 요소가 많아 친근하고 편안한 느낌을 주는 것이 특징. 차트에서 1위를 한 'Drag me Down' 뮤직비디오는 나사에서 촬영한 것으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One Direction, 1CD 13곡, Universal Music

2 Purpose

'세계 최대 트위터, 페이스북 팔로워 보유자' 저스틴 비버의 신보 <Purpose>. 틴 팝의 전형 같던 전작보다 한결 정교해진 음악을 선보인다. 세계적 덤스텝 DJ 스크릴렉스, 마룬파이브의 'Moves Like Jagger' 등을 만든 최정상 프로듀서 베니 블랑코 등과의 협업으로 완성도를 높였다. 어쿠스틱한 비트와 피아노, 플루트 등 다양한 악기 사이에 자신감 넘치는 보컬을 담은 'What do you Mean?', 속삭이는 보컬 톤으로 섬세한 감정을 표현한 'Sorry', 셀러브리티로서 겪은 인생 이야기를 풀어낸 일렉트로닉 R&B 'I'll Show You' 등을 담았다.

Justin Bieber, 1CD 18곡(딜럭스 버전), Sony Music

3 We are your Friends Music from the Original Motion Picture

영화 <We are your Friends>의 OST 앨범. <어바웃 타임>, <레미제라블> 등을 제작한 워킹 타이들이 만든 음악 영화인 만큼 OST에도 관심이 집중됐다. 영화는 잭 에프룬을 주연으로, 최고의 디제이가 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청춘들을 영상에 감각적으로 담았다. 저스티스와 시미안의 곡 'We are your Friends'를 비롯해 릴 존의 시원한 랩과 아메리카노스가 어우러진 클럽 넘버 'Blackout', 변칙적 일렉 구성과 허스키한 보컬이 돋보이는 데오로의 'I can be Somebody' 등 일렉트로닉 넘버의 향연이 펼쳐진다.

Various, 1CD 12곡, Sony Music

4 Pentatoni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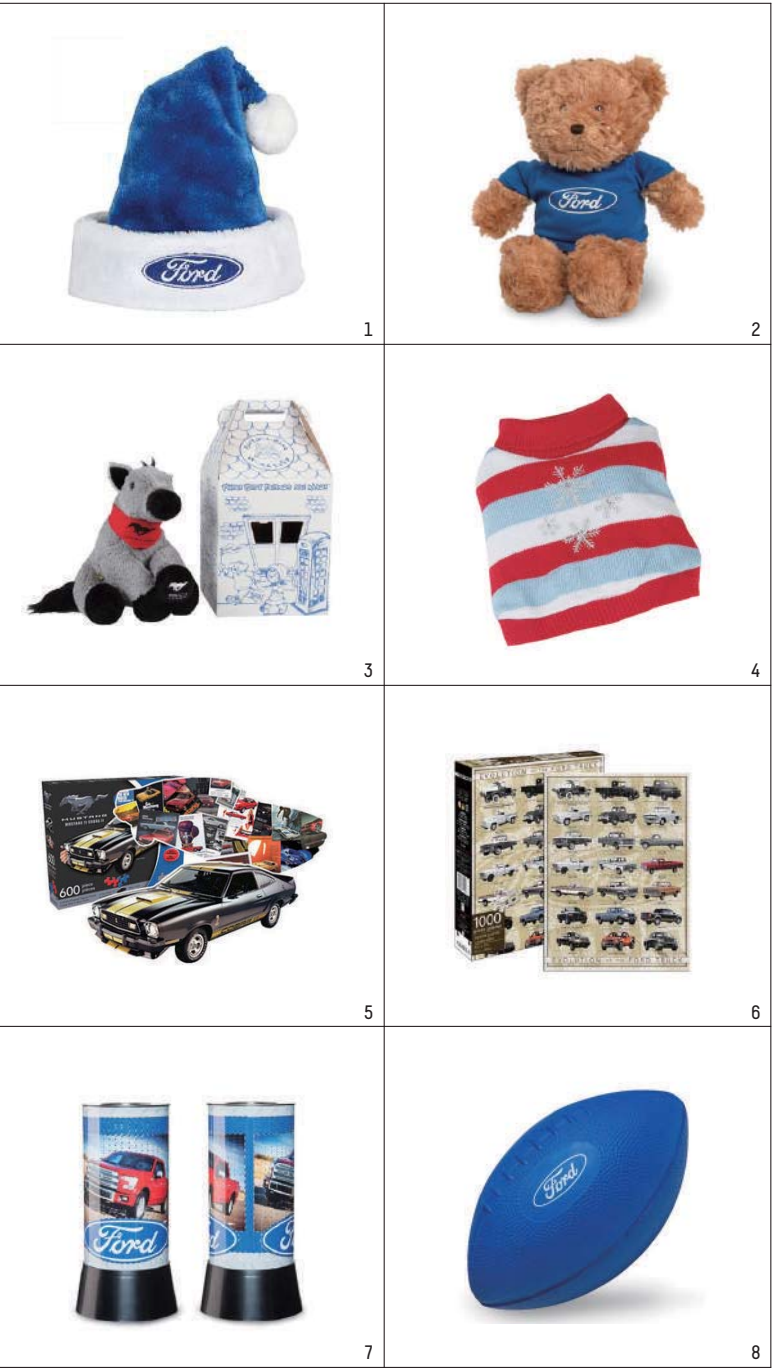
아카펠라 그룹 최초로 빌보드 1위를 차지한 '펜타토닉스'의 앨범이 나왔다. 펜타토닉스는 1962년 이후 가장 높은 차트 순위를 기록한 크리스마스 앨범 기록을 세우고, 이어 그래미상을 수상했다. 첫 정규 앨범 <Can't Sleep Love>에는 퍼커션과 비트박스, 고음과 중저음의 보컬들이 매끄럽게 조화를 이룬 곡이 실렸다. 아카펠라만이 낼 수 있는 생생한 소리, 1990년대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무드가 담겼다. 유튜브 조회 수 9000만을 넘는 '다프트 펑크' 메들리부터 '강남스타일'까지 커버 곡으로만 접해왔다면 오리지널 곡이 담긴 정규 앨범을 꼭 들어보길.

Pentatonix, 1CD 17곡(딜럭스 버전), Universal Music

Holiday Gifts for Kids

기쁨과 설렘 가득한 크리스마スイ브! 아이들 몰래 반짝이는 트리 밑에 두면 좋은 선물 리스트를 뽑았다.

Editor 강미라 Cooperation <http://merchandise.ford.com>



1 Santa Hat

크리스마스 무드와 축제 분위기를 무르익게 해줄 익살스러운 산타 모자. 폭신한 감촉의 소재가 기분 좋은 따스함을 전한다. 9.95달러.

2 Teddy Bear with T-shirt

블루 티셔츠를 입은 귀여운 테디 베어. 브라운 컬러의 털은 폴리에스테르 소재로 만들었다. 테디 베어의 앞은키는 22.9cm, 선키는 30.5cm. 17.95달러.

3 Mustang Build-A-Boss Plush Toy

완구 브랜드 '빌드어베어워크숍'의 머스탱 50주년 기념 한정판 제품. 이 귀여운 친구의 이름은 '보시(Bossy)'다. 머스탱 로고의 빨간 손수건을 두른 것이 포인트. 12.23달러(할인가).

4 Bossy Holiday Sweater

머스탱 50주년 기념 한정판 인형, 보시에게 입힐 수 있는 스웨터다. 눈꽃 모양의 자수와 레드 컬러가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잘 어울린다. 9.99달러.

5 Mustang 600-Piece Jigsaw Puzzle

양면으로 인쇄해 두 가지 퍼즐을 즐길 수 있는 제품. 앞면은 머스탱 코브라 II 모델을, 뒷면은 역대 머스탱 광고와 잡지에 소개된 머스탱의 모습을 콜라주해 인쇄했다. 19.99달러.

6 Ford Trucks Evolution 1000-Piece Jigsaw Puzzle

1925년 모델 T부터 2013년 F-150까지, 포드 트럭의 히스토리를 담은 자이언트 사이즈의 1000피스 직소 퍼즐. 차를 좋아하는 아이라면 더없이 좋은 선물이 될 것이다. 15.99달러.

7 F-150 Rotating Lamp

아이들 방에 두기 좋은 재미있는 램프. F-150 모델의 이미지가 회전하면서 반짝인다. 이미지가 한 바퀴 도는 데는 약 40초 걸린다. 15와트 전구가 포함되어 있다. 84.95달러.

8 Foam Football

약 22.9cm 크기의 럭비공. 던지거나 받을 때 유용하도록 움켜쥐기 쉽게 만들었다. 선명한 블루 컬러에 부드러운 폼 재질이라 안전하다. 9.95달러.

*위 제품은 국내 판매용이 아니며 인터넷 해외 배송으로만 구입 가능합니다.

추운 날의 보양식

식자재 고유의 맛에 충실한 정통 중식을 선보이는 여경옥 셰프.
자칫 몸에 기운이 떨어지기 쉬운 겨울철에 어울리는 중국 보양
요리 3종과 함께, 그의 요리 인생을 들어보았다.

Editor 김은성 Photographer 김관석

Cooperation 롯데호텔 도림(02-317-7101)

길퐁 전복

튼실한 활전복을 통째로 닭고기, 채소류와 함께 넣은 물에 이틀 정도 조린다. 육수가 전복에 깊이 배어들고 크기는 처음의 절반이 된다. 소스와 어우러지면 풍미가 더욱 살아나고, 미끈하고 탄력 있는 식감이 그만이다. 중국 4대 보양 요리 중 하나로 '길퐁'은 매우 귀하다는 뜻이다.



가상 해삼

해삼을 삶아 3주간 말려 아주 단단해지면 다시 4박 5일간 끓이고 식히기를 반복한다. '바다의 인삼'이란 별명을 가진 해삼은 햇볕에 말리는 동안 아미노산이 크게 늘어난다. 한우를 활용한 소스에 조리면 해삼의 식감과 향기가 더욱 살아난다. 가상(家常)은 집에 항상 있는 재료로 해 먹는 음식이란 뜻이다.

고법 불도장

'맛있는 냄새에 끌려 스님이 절의 담을 타고 넘어가서 먹었다'는 뜻의 이름을 지냈다. 제비집, 견해삼, 생선 부레, 전복, 자라, 오골계, 송이 등 원기 회복에 도움이 되는 귀한 재료를 삶아 기름기를 제거한 뒤 5시간 이상 고아낸 육수와 함께 중탕한다. 마무리로 소홍주를 뿌리면 향이 그득하다. 몇 숟가락 떠먹으면 온몸에 더운 기운이 한껏 올라온다.

**Q 열여섯 살 때 주방에 처음 들어갔다.**

A 중국 산둥성 출신인 화교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났다. 아버지는 내가 세 살 되던 해 세상을 떠나셨다. 하루 한 끼 먹을 정도로 형편이 나빠졌고, 중국집 배달을 시작했다. 1978년, 먼저 일하던 형을 따라 요리를 시작했다. 요리사가 좋은지 어떤지도 모르고, 그저 형님이 멋있어 보여서. 그런데 “저눔을 잘라, 말아” 소리를 달고 살았다. 당시엔 몹시 어리버리했으니까. 게다가 선배들이 북경어와 산둥어로 된 용어로 지시를 하는데 알아들을 수가 없어가지. 당시에는 석탄을 땀으니까 아침마다 40kg짜리 석탄 부대를 날라야 해서 늘 코끝이 새까맸다.

Q 형이 여경래 셰프(홍보각 오너 셰프, 한국중국요리협회 회장)이다. 최고의 동료이자 선배다.

A 돌이켜보면 형도 어렸는데, 정말 대단하다. 24시간 나를 챙겨줬다. 지금도 인터뷰만 하면 동생 자랑이 반이다. 어릴 땐 좀 갑갑해서 하극상을 저지른 적도 있다. 함께 일하던 '거목'에서였는데, 형은 내가 잔소리를 들을까 봐 미리 이래라 저래라 시키곤 했다. 칠없던 때라 '못해먹겠다'고 들어받았다. 레스토랑 '더 루이'를 시작할 때도, 국제 요리 대회에 참가할 때도 형의 추진력 덕을 많이 보았다. 누구든 쉽게 중화 요리를 접할 수 있게 하자고 의기투합해 《2,000원으로 중국요리 만들기》라는 책을 내기도 했다.

Q 요리를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은 순간은?

A 요리사에게는 손님의 좋은 반응 하나하나가 값이 남는다. 굳이 꼽자면, 1990년대 방한한 장쩌민 전 주석이 “한국에도 이런 중식 요리사가 있느냐”고 칭찬했을 때 감개무량했다. 하지만 처음 주방이 놀이터처럼 재미있던 초보 시절이 가장 생생히 기억난다. 열여덟 살에 '홍보성'으로 옮겼는데 총주방장 주은리 씨가 여간 대단하지 않았다. 오전 9시 출근인데 7시에 나오더라. 무조건 그보다 먼저 출근해 청소하고 양파를 깎다. 시간이 흐르고 점차 인정받게 됐다. 나부터가 처음에는 '말귀 못 알아듣는다'는 평가를 받았으니까, 후배들을 한눈에 평가하지 않으려 한다.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말은 절반만 맞다. 결과는 노력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

Q 최근 중식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다. 그럼에도 탕수육, 칠리새우 등 늘 먹던 것만 시키는 사람도 많다.

A 음식은 알면 알수록 더 맛있다. 음식의 유래, 식자재를 키운 자연환경 등을 공부하면 정말 재밌어진다. 호기심이 생기니 낯선 음식도 거부감 없이 먹게 되는 효과도 있다. 불도장 같은 최고급 요리도 스토리를 모르고 먹으면 맛있다. 그래서 손님들에게 음식에 얹힌 이야기, 조리법의 특징 등을 전해준다. 식사는 문화를 체험하는 가장 생생한 방법이다.

Q 중국 요리가 한국에 정착하는 데 큰 힘을 보탰다.

A 현지화가 중요하다. 음식은 나만 만족하면 되는 예술이

아니니까, 한국인의 식습관을 고려했다. 예컨대 불도장은 중국에서는 커다란 단지에 끓여 각자의 그릇에 나눠주지만, 우리나라는 1인분씩 서빙하는 것으로 현지화됐다. 또 중국 본토에서는 소고기 요리 하면 소고기만 넣는데, 한국의 중국 요리에는 채소를 많이 쓴다. 향신료도 조절한다. 중식의 대표 향신료인 고수는 중식 애호가들도 20%는 안 먹는다. '걸레 냄새 난다', '향수를 마시는 것 같다' 등 어찌나 표현도 창의적인지.(웃음) 자체할 수밖에 없다. 그래도 30년 전보다는 훨씬 본토의 맛에 가까워졌다. 호텔 중식은 현지와 거의 비슷하고 로컬 스타일은 보다 한국적이다.

Q 셰프는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직접 칼을 들고 식자재를 다뤄야 한다. 체력 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A 체력도 체력인데, 마음 관리가 중요하다고 본다. 좋은 기분으로 만들면 좋은 기가 요리에 담긴다. 손에 약이 있고 손에 독이 있다. 사람을 위하는 마음, 오늘이 행복한 마음이 담긴 요리는 남다르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변에 칭찬을 해줄 수 있는 마음 상태를 유지하려 한다. 바쁘더라도 함께 일하는 이들의 장점을 꼭 짚어 말해주려 노력한다. 요리하고, 나르고, 그릇을 씻고, 안내를 하는 모든 구성원의 기운이 식사에 영향을 준다. 손님이 셰프에게 좋은 기운을 주는 경우도 많다. 만화 〈신의 물방울〉이나 〈미스터 초밥왕〉에 나오는 것처럼 유려한 시적 표현을 써서 칭찬을 해주면 감동적이다. 내가 말중변이 없어 더 놀랍다. 아무리 유명한 셰프라 해도 칭찬엔 민감할 수밖에 없다.

Q 후배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다면?

A 우선, 내공이다. 중식은 뜨거운 불 앞에서 몸으로 익힌다. 반짝이는 감각보다 시간의 힘이 좌우한다. 가령 초보들은 자주 조리법에 변화를 준다. 그런데 원가 바꿀 때는 확실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학생들에게 기본을 탄탄히 하라고 강조한다. 물론 신임 때는 감각 좋은 타입이 더 두드러져 보이지. 하지만 경력이 쌓인 후에 기본을 다시 쌓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나는 감각이 뛰어난 타입은 아니다. 단순무식하게 내공을 쌓았지. 그런데 요즘 약간 생각이 변화가 생기긴 했다. 젊은 셰프들이 활약하는 것을 보며, '이제는 감각의 중요성이 더 커지는 시대구나' 생각한다. 시대에 따라 생각은 변하기 마련이다. 그래도 변하지 않는 건, '최소한 스스로 돈 내고 먹고 싶은 음식을 내놓자'는 신념이다. 맛이 얼마나 있느냐를 떠나, 최소한 요리사는 그 정도의 뚜렷함을 지녀야 한다.

Q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은가.

A 나를 멘토로 삼는 후배들에게 늘 본받고 싶은 모습으로 살고 싶다. 그게 인생에 큰 활력소가 된다. 마흔 넘어 검정고시를 보고 디지털 강의를 들으며 박사 학위를 딴 것도 후배들에게 당당하기 위해서다. 보는 눈이 많으니 나쁜 짓을 못하는 것도 고맙지. 요리는 요리 그 자체를 넘어 다른 의미 있는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도구가 된다. 사회적 메시지를 알리거나 재능 기부를 통해 사람들을 돕는 등 파생 효과가 큰

것이 매력이다. 앞으로 금전적 기부, 재능 기부를 더 열심히 하고 싶다. 아내는 우스갯소리로 “그 돈 나 줘!” 하지만, 뜻을 함께하고 있다. 가장 요리 잘하는 셰프가 아니라 가장 좋은 영향을 미치는 셰프, 후배들에게 이정표가 되는 셰프가 되고 싶다.

여경옥

중국 요리는 곧 '싸고 빨리 오는 배달 음식'이란 건 옛날 말이다. 기름에 튀기고 볶고 지지는, 건강에 좋지 않은 요리라는 인식도 사라지고 있다. 고급 식자재를 강조하고 건강한 오일 프리 조리법을 개발한 중식 셰프들의 노력 덕분이다. 그 흐름의 중심에 늘 여경옥 셰프가 있었다. 그는 중식 특유의 기름기와 강한 짭짤, 단맛을 줄이는 노력을 통해 '한국인의 입맛을 가장 잘 이해한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광둥 요리를 비롯해 쓰촨 요리, 북경 요리, 상하이 요리까지 두루 섭렵한 대한민국 중식계의 최고 스타 셰프다. 1984년 신라호텔에 입사한 후 24년간 중식당 팔선의 얼굴이던 그가 경쟁사인 롯데호텔로 옮기며 이목이 집중된 것은 당연했다. 이후 호텔 중식에 새 바람을 일으켰다. 여 셰프는 불도장, 삭스핀 등 자신의 주특기를 도림의 대표 메뉴로 내세우며 이렇다 할 개성이 없던 도림을 대중에게 확실히 각인시켰다. 특히 신경 쓴 것은 역시 재료. “고급 요리일수록 재료 싸움이에요. 직접 구매가 원칙인데, 예를 들어 국내산 전복은 완도에서 직접 사죠. 같은 재료도 단계를 여러 번 거치면 신선함이 줄어들거든요.” 현재 도림은 한국인의 입맛에 잘 맞되 본래의 정체성을 잃지 않은 광둥 요리를 선보이는 식당으로 유명하다. 더불어 중국 동방 미식 세계 요리 대회 개인 부문 금상 등 다양한 국제 대회 수상 경력과 함께, 《여경옥의 명품 중국요리》, 《오너 셰프 레시피》 등을 집필해 중식의 레시피 확립에 기여하기도 했다.



제주도를 한 바퀴 둘러 아름답지 않은 곳이 있을까? 공항에서 특급 호텔이 늘어선 서귀포로 가는 길목이라는 인식 대신 볼거리 넘치는 제주시를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 포드 전시장을 둘러본 뒤 제주 시내에만 머물러도 제주도의 특별한 아름다움을 공감하기에 충분하다.
Editor 정예진 Cooperation 제주도 관광공사(064-740-6000)

제주의 재발견



스타 셰프의 요리를 만나다
모리노아루요

제주도에 왔다면 해산물 요리는 꼭 맛볼 것. 애월읍에 위치한 모리노아루요에서는 일식 요리를 선보이는데, TV 요리 경연 프로에서 우승한 김승민 셰프의 요리를 맛볼 수 있다. 아루요라는 이름으로 두 곳의 음식점을 냈는데, 이 레스토랑들을 찾기 위해 일부러 제주도를 방문하기도 한다고. 많은 사람이 제주도 여행 중 그의 요리를 맛보기 위해 대기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다. 그중 모리노아루요는 김승민 셰프가 직접 요리하는 곳으로 100% 예약제로 운영한다. 점심의 정식과 저녁의 코스 요리는 그날그날 재료의 신선도에 따라 메뉴가 달라진다. 한적한 곳에 위치해 식사 전후로 간단히 주변 경관을 둘러보며 여유를 만끽하기에도 좋다.
위치 제주시 애월읍 하소로 769-5
문의 064-799-4253

1



2

신비로운 숲 속 길을 따라 힐링하다
비자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제주도 최초의 삼림욕장. 비자림이라는 이름은 이곳을 빼곡히 채운 나무, 비자에서 따온 것이다. 단일 품종 2800여 그루의 나무가 숲을 이룬 건 세계에서 보기 드문데, 그 덕분에 쌍둥이 같은 나무들이 늘어선 독특한 풍경을 자랑한다. 여름에는 화산재가 깔린 곳을 맨발로 걸을 수 있으며, 겨울에는 오백 살이 넘은 나무들이 흰 눈으로 뒤덮인 모습을 볼 수 있다. 이곳의 산책로는 2km가 넘는다. 1년 내내 언제 걸든 500년 이상 살아온 나무들이 뿜어내는 공기를 들이마시다 보면 마음 깊은 곳까지 치유되는 듯하다.
위치 제주시 구좌읍 비자숲길 62 비자림
문의 064-710-7912



3

12월 31일을 함께하고 싶은 곳
사라봉

제주도에서 경관이 가장 뛰어난 10곳을 영주십경(瀛州十景)이라 부른다. 제1경은 성산일출봉에서 바라보는 일출이며, 제2경이 바로 사라봉에서 바라보는 낙조다. 사라봉은 오르기 어려운 산이 아닌, 높이 148m로 제주 도민에게는 마치 뒷산처럼 익숙하고 친숙한 산이다. 어느 지역이나 있을 법한 산이지만 꼭대기에 오르면 생각이 달라진다. 북쪽으로는 끝없이 펼쳐진 바다가, 남쪽으로는 숨이 막힐 정도로 위엄 있는 한라산이 바라다보인다. 그리고 제주시의 그림 같은 풍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이곳에서 보는 낙조는 사봉낙조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 1월 1일 성산 일출봉을 맞이하기 전 사랑하는 이와 꼭 한 번쯤 들려야 할 제주도의 명소다. 특히 사라봉의 등대는 아름답기로 이름나 있다.
위치 제주시 사라봉 동길 74
문의 064-728-3605



5

깊숙이 들여다보는 제주도
제주 돌 문화공원

돌과 함께 해온 제주의 역사와 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공원. 반나절을 꼬박 돌아봐야 모두 볼 수 있을 정도로 면적이 넓다. 선사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돌과 함께한 생활상을 그대로 복원했으며, 현무암과 기암괴석이 웅장하게 서 있는 모습도 볼 수 있다. 공원을 느릿느릿 걸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온 듯한 착각을, 또 어느 순간에는 오지로 여행을 온 듯한 기분이 느껴진다. 소박한 숲길은 물론 곳곳에 독특한 풍경이 많아 포토 스폿으로도 인기 있다.
주소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 2023
문의 064-710-7731



4

한겨울의 아이스뮤지엄
제주 수목원테마파크

추운 날 야외에서만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다면, 밤 시간을 숙소에서만 보내고 싶지 않다면 제주 수목원테마파크를 추천한다. 추위를 피해 실내로 들어섰다면 처음에는 조금 당황할지도 모르겠다. 1층에 위치한 아이스뮤지엄은 얼음으로 만든 볼거리들이 차가운 기운을 내뿜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내 아이처럼 신나는 체험을 하게 되며, 관람하는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입구에서 담요를 나눠준다. 2층은 3D 착시 아트를 전시하는 곳으로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도 충분히 즐길 만한 전시물이 가득하다. 3층은 360도 5D 상영관으로, 제주도의 자연경관과 함께 이색적인 경험을 할 수 있다.
위치 제주시 은수길 69
문의 064-742-3700

엄동설한도 물리치는 짜릿한 손맛

Ice Fishing

흔히 '겨울 레포츠' 하면 스키나 스노보드를 떠올린다. 그만큼 대중화된 스포츠이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낚시 특유의 짜릿한 손맛을 좋아하는 이라면, 한 번쯤 한가로이 낚싯대를 드리우고 싶었던 사람이라면 올겨울엔 얼음낚시를 즐겨보는 게 어떨까. 매서운 추위와 맞서 싸우다 보면 월척보다 멋진 추억을 낚을 수도 있다.

Editor 차승진



짜릿한 손맛에 반하고! 새하얀 눈맛에 빠지고!

눈은 겨울 레포츠의 꽃이다.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레포츠가 차고 넘치지만, 그 배경에 하얀 눈이 드리워지면 왠지 낭만이 묻어난다. 일상의 스트레스나 걱정거리를 새하얀 눈 속 깊이 묻어둔 채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할 수도 있다. 그중에서도 얼음낚시는 겨울에만 즐길 수 있는 야외 레포츠다. 강과 저수지, 호수가 꽁꽁 얼어야 얼음낚시가 가능하기에 그야말로 겨울의 절정을 만끽할 수 있다. 예부터 우리 선조들은 얼음낚시를 즐겼다. 불과 1970년대까지만 해도 한강에서 얼음낚시를 하는 강태공을 심심찮게 볼 수 있었다.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팔당지역을 비롯해 왕십리, 독섬 등 한강 상류 곳곳이 특히 인기 있었는데, 어른들이 얼음낚시를 하는 동안 아이들은 썰매나 스케이트를 타고 얼음 위를 내달렸다. 얼음낚시를 하는 방법은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다.

얼음에 구멍을 뚫고 그 속에 미끼를 끼운 낚싯대를 드리우는 것이다. 어른 팔뚝만 한 잉어가 줄줄 올라와 아예 취미가 아닌 생업으로 삼는 이도 있었다고 한다.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에 발행한 프랑스 잡지 〈주르널 데 보야주(Journal des Voyages)〉에 꽁꽁 언 북한강에서 얼음낚시를 하는 낚시꾼의 모습이 실리기도 했다.

얼음낚시, 안전하게 즐기기

낚시터의 빙질과 어종 등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얼음낚시에도 포인트가 있다. 봉어 낚시는 가장자리 수초지대 혹은 깊은 수심대가 좋고, 빙어 낚시라면 햇볕이 잘 드는 자리를 택한다. 절대적으로 꼭 맞는 포인트는 없으므로 낚싯대를 가만히 놓아두지 말고 미끼가 눈에 잘 띄도록 위아래로 살살 흔들어줘야 한다. 모든 레포츠가 마찬가지지만, 얼음낚시는 특히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결빙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다. 얼음의 두께가 20cm 이상 되지 않으면 자칫 얼음이 깨질 위험이 있다. 최근 몇 년간 빙어 낚시가 유행하면서 가족과 함께 빙어 낚시터를 찾는 사람이 늘고 있다. 빙어 낚시를 할 때는 얼음이 가장 얇게 어는 물 가장자리에서 아이들이 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얼음 구멍은 지름 20cm 이하로 뚫어야 발이 빠지는 사고를 막을 수 있다. 또 구멍과 구멍 사이는 최소 1m의 간격을 둔다. 만약 얼음 구멍에 물이 차오르면 바로 낚시를 중단해야 한다. 얼음이 무게를 견디지 못해 일부 가라앉았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낚시를 할 때는 겨울 레포츠의 특성상 방수·방한 기능성 소재의 복장을 착용하고, 방한모자와 핫팩을 준비해 체온 유지에 신경 써야 한다. 또 일반 낚시용 의자 대신 아이스박스를 이용하면 만약의 경우 구멍 튜브 대응으로 활용할 수 있다.

tip

기본 장비

- 1. 낚싯대** : 낚시터의 수심과 빙질, 어종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낚싯대의 종류는 천차만별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얼음낚시에는 1m 이내의 짧은 낚싯대를 권한다. 최근에는 얼음낚시 전용 소형 릴대를 사용하는 사람이 많고, 빙어 낚시의 경우 1~1.5m의 견지대를 주로 쓴다.
- 2. 얼음 끌** : 얼음 구멍을 뚫는 도구. 간혹 도끼나 망치, 돌로 구멍을 뚫는 사람이 있는데, 얼음 주변에 금이 갈 수 있어 위험하다.
- 3. 뜰채** : 얼음 구멍에 떠다니는 살얼음을 건져내는 장비. 구멍에 살얼음이 끼면 물 위의 낚시망이 부러질 수 있다. 요즘은 길이 조절이 가능한 뜰채도 있다.
- 4. 미끼** : 겨울 낚시에는 지렁이나 낚시용 구더기 등 살아 있는 미끼를 써야 물고기를 유인하기 쉽다. 하지만 수질 오염 방지를 위해 살아 있는 미끼를 금지하는 곳도 있으니 미리 알아보자.

얼음낚시를 할 수 있는 곳

춘천호, 소양호, 대청호, 의림지 등은 오래전부터 빙어 낚시꾼들이 자주 찾는 곳이다. 그러나 겨울에는 대부분의 저수지에서 빙어 낚시를 할 수 있기에 집에서 가까운 곳을 찾아도 무방하다. 겨울 축제장에서도 얼음낚시를 즐길 수 있다. 전국 곳곳에서 빙어축제와 송어축제, 산천어축제가 열린다. 그중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선정한 '화천산천어축제'는 2016년 1월 9일부터 31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이번엔 아간에도 즐길 수 있는 야경 루어 낚시터를 운영한다니 참고하자. 또 2016년 1월 16일부터 24일까지 9일간 '제17회 인제빙어축제'가 열린다. 12월 18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열리는 '제9회 평창송어축제'는 얼음낚시는 물론 송어 맨손 잡기, 봅슬레이 체험 등을 할 수 있다.





구름이 그늘이 되어주는
자연 속 라운드

소노펠리체 CC

팔봉산과 홍천강이 어우러진 천혜의 자연환경에서 라운드를 즐길 수 있는 소노펠리체 CC. 하늘과 맞닿은 정상에서 라운드를 즐기는 힐링 코스와 동화 속 유토피아의 에코 코스가 펼쳐져 있다. 세계적 건축가 다비드 피에르 잘리콩이 설계한 클럽하우스도 가히 예술이다.

Editor 김민정 Cooperation 소노펠리체 CC(1644-0063)



대명그룹의 프리미엄 브랜드 소노펠리체. 이탈리아어로 소노(Sono)는 '꿈', 펠리체(Felice)는 '행복, 즐거움'을 뜻한다. 차별화된 고품격 서비스를 지향하는 소노펠리체 컨트리클럽. 서울 강남에서 한 시간가량 떨어진 강원도 홍천군 두릉산 자락에 위치한 이곳은 코스 전장 6630m(7250Y) 총면적 42만 평에 달하며 힐링과 에코를 모티브로 가공하지 않은 자연 속에서 라운드를 즐길 수 있다. 세계적 건축가 다비드 피에르 잘리콩(David-Pierre Jalicon)이 설계한 예술적인 클럽하우스, 드넓은 호수와 코스 전환 시 만나는 터널, 자연 생태의 원형을

최대한 유지한 설계와 핑크빛 벙커 등이 특징이다. 소노펠리체 CC는 2014년 정식 개장한 정규 18홀 코스 47곳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서울경제 골프매거진>의 '2014 한국 10대 뉴 코스'와 <골프다이제스트>의 '2014~2015 대한민국 10대 베스트 뉴 코스'에 선정되기도 했다. 특히 <골프다이제스트>의 '2014~2015 대한민국 10대 베스트 뉴 코스'는 짝수 해마다 개장 2년 미만의 신설 코스를 대상으로 발표하는데 골프 업계와 학계, 코스 설계가, 미디어 종사자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 48명의 패널이 참여해 샷 가치, 난이도, 다양성, 기억성,

심미성 다섯 가지를 평가한다. 소노펠리체 CC는 클럽하우스의 인상적인 배려와 앞뒤 홀에서의 거리 간격이 충분하고 라운드의 독립성을 유지한 점과 홀마다 특색을 가미한 점이 돋보인다는 평을 받았다.

신선 부럽지 않은 명품 코스

소노펠리체 컨트리클럽은 힐링 코스 9홀과 에코 코스 9홀의 총 18홀로 구성되어 있다. 힐링 코스는 6000여 평의 호수와 함께 다양한 샷 밸류를 경험할 수 있도록 리드미컬하게 설계했고, 무엇보다 그린이 하늘과 맞닿아 있어 경관이 시원시원하다. 에코 코스는

장엄한 산 가운데 보이는 푸른 초원과 계곡으로 친환경적 자연 속에서 편안한 라운드를 할 수 있다. 웅장하고 다이내믹한 지형의 변화를 코스에 적극 반영해 전략적 묘미를 즐길 수 있도록 설계했다. 특히 모든 홀에서 팔봉산을 보며 환상의 라운드를 즐길 수 있으며, 화창한 날에는 멀리 화천까지 볼 수 있어 전망이 빼어나다. 소노펠리체 CC는 그린 스피드를 연중 3.3m 이상 유지해 유리알 그린으로도 유명하다. 때문에 볼 좀 친다는 골퍼들도 그린에 올라가면 긴장하기 마련이다. 힐링 코스와 에코 코스를 연결하는 에코 브리지는 능선을 살려 만든

생태 터널로 야생동물이 지나다니는 길을 안전하게 보호한다. 터널 안에는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레인보조명을 갖춰 또 다른 볼거리를 선사한다.

자연과 하나 된 클럽하우스

다이아몬드와 비상하는 새의 날개를 모티브로 건물 외관부터 차별화한 디자인으로 주목받은 소노펠리체는 루이 비통, 까르띠에 등 세계적 명품 브랜드의 건축과 인테리어를 담당한 프랑스 건축가 다비드 피에르 잘리콩의 작품이다. 그는 동양의 풍수지리, 음양오행을 건축 이론으로 도입한 최초의

프랑스 건축가다. 건물 외관은 비상하는 독수리를 형상화해 설계했으며, 소노펠리체 CC 클럽하우스는 자연으로부터 영감을 얻은 디자인, 자재, 형상으로 구성해 건물 안에서도 천공에서 쏟아져 내리는 따사로운 햇살을 누릴 수 있다.

파우더룸과 사우나 부스는 개별 부스로 공간을 독립적으로 사용하도록 배려했으며 건식 사우나, 노천탕 등은 쌓인 피로를 풀어주는 데 그만이다. 테마파크 수영장을 갖춘 오션월드, 스키월드, 승마클럽까지 운영하고 있어 다양한 레포츠와 휴식이 가능한 이곳에서 라운드를 즐겨보는 건 어떨까.



삶을 변화시킬 메모의 기술

칸트, 니체, 정약용, 잡스가 엄청난 메모광이었다는 사실을 아는가. 이들에게 메모는 단순한 기억의 보조 장치가 아닌 '생각의 반응로'이자 '창의성의 원천'이었다. 삶을 변화시킬 메모의 기술, 그 필요성과 효과적인 방법을 알아보자.

Editor 이슬지 참고 서적 《메모의 기술》 이영호 저, 큰방 출판

tip

메모의 기술, 일곱 가지

- 1 언제 어디서나 메모하라
- 2 주변 사람들을 관찰하라
업무 능력이 뛰어난 사람 등의 특징을 메모하라
- 3 기호와 암호를 활용하라
- 4 중요 사항은 눈에 띄게 하라
- 5 메모하는 시간을 따로 마련하라
- 6 메모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라
- 7 메모를 재활용하라

단순한 '저장'을 넘어 '창조'의 발판으로

현대인은 보고, 듣고, 말하면서 무수한 정보와 마주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정보는 물고기처럼 머릿속을 빠져나가기 마련. 그렇다고 정보를 모두 기억하기 위해 애쓸 필요는 없다.

치열한 정보 전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오히려 기억이 아닌 창조에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두뇌를 기억과 저장 기능으로 사용하지 말고 창조 기능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무엇을 기억하기 위해 고심하는 이보다 무언가를 창조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성공에 더 가까워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메모는 중요하다. 일단 기록해두고 잊을 수 있다. 안심하고 잊은 뒤 창의적인 생각에 집중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메모를 한다'는 그 자체이지 결코 '메모를 하는 형식'이 아니라는 점이다. 메모는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만 알아볼 수 있으면 되므로 굳이 공들여 예쁘게 쓰려는 욕심은 버려도 좋다. 이것만 잘 지켜도 메모하는 습관을 들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영문 이니셜, 한자, 기호 등을 다양하게 활용하면 메모가 간편해지고 속도도 빨라진다.

메모의 습관화, 꾸준히 성실하게

영국의 화가 프랜시스 베이컨은 '필요할 때 쓰기 위해 적어둔 즉흥적인 생각'이라는 주제로 메모를 모았고, 안철수는 노트북에 '글 소재'라는 파일을 만들어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마다 메모를 남긴다고 한다. 중요한 점은, 메모를 습관화하는 것이다. 아이디어는 때를 가리지 않고 떠오른다. 게다가 긴장이 풀린 상황에서 더 많은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 있다. 그렇다고 꼭 거창한 아이디어를 적으라는 말은 아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들은 말이나 느낌을

메모해도 좋다. 그날 있었던 일을 짚막하게 기록하는 것, 이루고 싶은 꿈이나 하고 싶은 일을 적는 것, 일과나 감정 상태를 적는 것도 좋다. 모두 훗날 아이디어로 이어지는 자산이 될 수 있다. 메모를 습관화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법 역시 메모다. 오늘 처리해야 할 일, 기억해야 할 일, 내일 해야 할 일 등을 리스트로 작성한다. 일의 순서를 정하고 작업이 끝난 일은 빨간 줄로 표시해 명확히 구분한다. 메모한 일을 끝낸 뒤 돌아오는 성취감은 충분히 즐길 것. 그래야 메모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가능한 한 수첩은 하나를 정해 메모하고, 꼭 다시 한 번 읽어보며 중요한 내용은 따로 옮겨 적는 것도 중요하다. 물론 메모에 정석은 없다. 무엇보다 자신에게 가장 편한 방법을 찾아 실행하는 것. 이 한 가지만 기억하면 성공적인 '메모광'이 될 수 있다.

Ford Dealer News

Editor 김민정



선인자동차, 동대구 서비스센터 오픈

포드자동차의 공식 딜러인 (주)선인자동차가 지난 9월 7일 대구 동구 동호동에 포드 동대구 서비스센터를 오픈했다. 동대구 서비스센터는 연면적 4075.69㎡(약 1235평) 규모에 지상 3층으로 되어 있으며, 수도권 이남에서는 최대 규모의 서비스 시설을 자랑한다. 11개의 경정비 워크베이와 8개의 중정비(판금/도장) 워크베이를 갖추고 최신 설비 및 전문 인력을 확보해 일반 정비는 물론 판금, 도장까지 원 스톱 전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규모 서비스센터인 만큼 앞으로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해 고객 만족도를 높여나갈 예정이다.



선인자동차, '링컨 인비테이셔널 2015' 개최

포드코리아의 공식 딜러사인 (주)선인자동차가 지난 10월 12일 경기도 광주 남촌 CC에서 링컨 고객들을 대상으로 '링컨 인비테이셔널 2015(LINCOLN Invitational 2015)'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올해 6회를 맞은 이 대회는 링컨의 브랜드 품격을 높이고 고객에게 링컨만의 남다른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개최하고 있다. 화창한 날씨 아래 링컨 차량 구매 고객 144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는 메달리스트와 우승, 준우승은 물론 다버디, 다파, 롱기스트와 니어리스트 등 다양한 수상자를 선정했다. 수상자에게는 고급 아이언 세트와 드라이버, 퍼터, 리모와 여행용 캐리어 등 푸짐한 상품을 수여했다. 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올-뉴 MKX와 함께 지난 9월 출시한 베스트셀링 수입 7인승 SUV 2016 뉴 익스플로러 등 포드와 링컨의 대표 차량들을 전시했다.

Ford News

Editor 김민정



‘2016 뉴 익스플로러’ 출시

포드코리아는 지난 9월 14일 파워풀한 퍼포먼스와 세련된 디자인, 첨단 기능, 넓은 실내 공간을 갖춘 ‘2016 뉴 익스플로러’를 공식 출시했다. 익스플로러는 1990년 미국에서 처음 출시한 이후 700만 대 이상 판매, SUV의 대표 모델로 자리매김했다. ‘2016 뉴 익스플로러’에 최초로 2.3L 에코부스트 엔진을 장착해 274마력의 강력한 파워와 기존 3.5L 모델과 대비해 15% 이상 향상된 최대 41.5kg·m의 높은 토크를 발휘한다. 강인해 보이는 라디에이터 그릴과 로 빔을 적용한 LED 어댑티브 헤드램프를 상향 배치하고 낮아진 루프랙과 새로운 리어 스포일러를 추가해 공기역학을 개선해 강렬하면서 간결하고 세련된 디자인을 완성했다. 그뿐 아니라 측면 충돌 튜브까지 갖춘 ‘삼위일체형’ 3중 안전장치, 빠르게 지형 조건을 평가해 핸들링과 견인력을 제공하는 인텔리전트 4WD와 결합한 지형 관리 시스템(Terrain Management System) 등을 탑재, 안전과 운전자의 편의성을 극대화했다.



‘핑크 워리어스 클래스’ 개최

10월 세계 유방암의 달을 맞아 포드코리아는 지난 10월 17일과 18일 포드 신사 전시장에서 200여 명의 모녀와 함께 유방암 예방 클래스 ‘핑크 워리어스 클래스(Pink Warriors Class)’ 행사를 개최했다. ‘엄마와 딸 사이의 건강 소통 프로젝트’라는 주제로 ‘유방암 지식 클래스’와 ‘유방 건강 요가 클래스’로 진행, 유방암 예방과 치료법에 대해 알아보고 모녀가 신체적, 감성적 교감을 통해 소통하는 활동을 체험했다. 포드자동차는 현재까지 1500억 원 이상의 기금을 조성해 전 세계적으로 유방암 예방과 퇴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2006년부터 ‘워리어스 인 핑크’ 의류 및 액세서리 컬렉션을 선보이며 판매 수익금 전액을 유방암 자선 단체에 후원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글로벌 캠페인으로 ‘모어 굿 데이즈(More Good Days)’라는 테마로 유방암 환우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난치병 아동을 위한 ‘위시베어 만들기 프로그램’ 참여

매년 9월을 ‘포드 글로벌 자원봉사의 달’로 정한 포드자동차는 올해 10주년을 맞이한 지난 9월 21일, 전 임직원과 딜러사가 함께 ‘위시베어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임직원과 다섯 공식 딜러사가 참여한 이번 프로그램은 난치병 아동 소원 성취 기관인 ‘한국메이크어위시재단’과 함께 국내 만 3~18세 난치병 아동에게 쾌유와 소원 성취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사랑과 정성으로 만든 위시베어 130여 개를 포드 포커스 디젤 차량 트렁크에 가득 실어 아이들에게 전달했으며, 이 캠페인을 통해 마련된 수익금은 난치병 아동들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기금으로 쓰일 예정이다. 포드코리아는 2002년부터 환경운동 후원 프로그램 ‘포드 그랜츠’를 비롯해 유방암 예방 캠페인 ‘워리어스 인 핑크’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아주캐피탈, 전속 금융사로 선정

포드코리아는 지난 8월 18일 딜러와 고객들에게 포드 및 링컨 파이낸셜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제공하고자 아주캐피탈을 전속 금융사로 선정했다. 그리고 앞으로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금융 상품, 서비스 및 연계 마케팅 개발을 위해 협력해나갈 예정이다. 포드 파이낸셜 서비스 및 링컨 파이낸셜 서비스의 이름을 내건 다양하고 경쟁력 높은 특별 프로그램과 차별화된 금융 프로모션은 아주캐피탈을 통해서만 제공된다. 차량 비교부터 구입, 금융 서비스 선택에 이르기까지 원 스톱 쇼핑 솔루션으로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Ford Line Up

*제원은 2015년 12월 기준



2016 MONDEO

(신연비 방정식 적용)

	Trend	Titanium
엔진형식	2.0L 듀라토크 TDCi 디젤엔진	2.0L 듀라토크 TDCi 디젤엔진
트랜스미션	파워시프트 6단 자동변속기	파워시프트 6단 자동변속기
배기량(CC)	1,997	1,997
최대 출력(ps/rpm)	180/3,500	180/3,500
최대 토크(kg · m/rpm)	40.8/2,000	40.8/2,000
구동 방식	FWD	FWD
승차 정원(명)	5	5
전장X전폭X전고(mm)	4,870X1,850X1,490	4,870X1,850X1,490
공차 중량(kg)	1,678	1,678
복합 연비(km/L)	15.6(2등급)	15.6(2등급)
도심 연비(km/L)	14.2	14.2
고속도로 연비(km/L)	17.5	17.5
CO ₂ (g/km)	121	121

*최근 강화된 연비측정방법으로 인해 연비가 하향되었으며, 기존 방정식에 따른 연비는 복합 15.9km/L, 도심 14.4km/L, 고속도로 18.2km/L입니다.

2016 MUSTANG

(신연비 방정식 적용)

	2.3 EcoBoost	GT 5.0 V8
엔진형식	2.3L 에코부스트 I-4 엔진	5.0L Ti-Vct V8 엔진
트랜스미션	셀렉트 시프트 6단 자동변속기	셀렉트 시프트 6단 자동변속기
배기량(CC)	2,261	4,951
최대 출력(ps/rpm)	314/5,500 (Coupe, Convertible)	422/6,500 (Coupe, Convertible)
최대 토크(kg · m/rpm)	44.3/3,000 (Coupe, Convertible)	54.1/4,250 (Coupe, Convertible)
구동 방식	RWD	RWD
승차 정원(명)	4	4
전장X전폭X전고(mm)	4,780X1,915X1,380(Coupe), 4,780X1,915X1,390(Convertible)	4,780X1,915X1,380(Coupe), 4,780X1,915X1,390(Convertible)
공차 중량(kg)	1,680(Coupe), 1,725(Convertible)	1,750(Coupe), 1,795(Convertible)
복합 연비(km/L)	9.1(5등급)	7.3(5등급)
도심 연비(km/L)	7.7	6.1
고속도로 연비(km/L)	11.6	9.7
CO ₂ (g/km)	185	232

*최근 강화된 연비측정방법으로 인해 연비가 하향되었으며, 기존 방정식에 따른 연비는 복합 10.1km/L(2.3 EcoBoost), 7.9km/L(GT 5.0), 도심 8.8km/L(2.3 EcoBoost), 6.6km/L(GT 5.0), 고속도로 12.4km/L(2.3 EcoBoost), 10.4km/L(GT 5.0)입니다.



2016 FOCUS

	Titanium(4DR/ 5DR)	Titanium Plus(4DR/ 5DR)
엔진형식	1.5L 듀라토크 TDCi 디젤엔진	1.5L 듀라토크 TDCi 디젤엔진
트랜스미션	파워시프트 6단 자동변속기	파워시프트 6단 자동변속기
배기량(CC)	1,499	1,499
최대 출력(ps/rpm)	120/3,600	120/3,600
최대 토크(kg · m/rpm)	27.53/2,000	27.53/2,000
구동방식	FWD	FWD
승차 정원(명)	5	5
전장X전폭X전고(mm)	4,540X1,825X1,465(4DR), 4,360X1,825X1,465(5DR)	4,540X1,825X1,465(4DR), 4,360X1,825X1,465(5DR)
공차 중량(kg)	1,470	1,470
복합 연비(km/L)	18.1(1등급)	18.1(1등급)
도심 연비(km/L)	16.4	16.4
고속도로 연비(km/L)	20.8	20.8
CO ₂ (g/km)	105	105



2015 TAURUS

	2.0 SEL/2.0 Limited	3.5 SEL/3.5 Limited	SHO
엔진 형식	직렬4기통 2.0L 에코부스트 엔진	V6 3.5L Ti-VCT 엔진	V6 3.5L 에코부스트 엔진
트랜스미션	셀렉트시프트 6단 자동변속기	셀렉트시프트 6단 자동변속기	셀렉트시프트 6단 자동변속기
배기량(CC)	1,999	3,496	3,496
최대 출력(ps/rpm)	243/5,500	292/6,500	370/5,500
최대 토크(kg · m/rpm)	37.3/3,000	35.1/4,000	48.4/3,500
구동 방식	FWD	FWD	AWD
승차 정원(명)	5	5	5
전장X전폭X전고(mm)	5,155X1,935X1,545	5,155X1,935X1,545	5,155X1,935X1,545
공차 중량(kg)	1,890	1,900	2,020
복합 연비(km/L)	10.4(4등급)	9.2(4등급)	8.2(4등급)
도심 연비(km/L)	8.8	7.9	6.9
고속도로 연비(km/L)	13.3	11.7	10.5
CO ₂ (g/km)	171	193	220



2016 KUGA

(신연비 방정식 적용)

	Trend	Titanium
엔진 형식	2.0L 듀라토크 TDCi 디젤엔진	2.0L 듀라토크 TDCi 디젤엔진
트랜스미션	파워시프트 6단 자동변속기	파워시프트 6단 자동변속기
배기량(CC)	1,997	1,997
최대 출력(ps/rpm)	180/3,500	180/3,500
최대 토크(kg · m/rpm)	40.8/2,000	40.8/2,000
구동 방식	인텔리전트 AWD	인텔리전트 AWD
승차 정원(명)	5	5
전장X전폭X전고(mm)	4,525X1,840X1,690	4,525X1,840X1,690
공차 중량(kg)	1,860	1,860
복합 연비(km/L)	13.0(3등급)	13.0(3등급)
도심 연비(km/L)	12.0	12.0
고속도로 연비(km/L)	14.6	14.6
CO ₂ (g/km)	146	146

*최근 강화된 연비측정방법으로 인해 연비가 하향되었으며, 기존 방정식에 따른 연비는 복합 13.5km/L, 도심 12.4km/L, 고속도로 15.1m/L입니다.

2016 EXPLORER

(신연비 방정식 적용)

	2.3L EcoBoost	3.5L Ti-VCT V6
엔진형식	2.3L 에코부스트 엔진	3.5L Ti-VCT V6 엔진
트랜스미션	셀렉트시프트 6단 자동변속기	셀렉트시프트 6단 자동변속기
배기량(CC)	2,261	3,496
최대 출력(ps/rpm)	274/5,500	294/6,500
최대 토크(kg · m/rpm)	41.5/2,500	35.3/4,000
구동 방식	인텔리전트 4WD	인텔리전트 4WD
승차 정원(명)	7	7
전장X전폭X전고(mm)	5,040X1,995X1,775	5,040X1,995X1,775
공차 중량(kg)	2,195	2,240
복합 연비(km/L)	7.9(5등급)	미정
도심 연비(km/L)	6.8	미정
고속도로 연비(km/L)	9.8	미정
CO ₂ (g/km)	215	미정

*최근 강화된 연비측정방법으로 인해 연비가 하향되었으며, 기존 방정식에 따른 연비는 복합 8.3km/L, 도심 7.2km/L, 고속도로 10.4m/L입니다.



*위 연비는 표준 모드에 의한 연비로써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정비 상태 및 외기 온도에 따라 실주행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Ford Network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는 서울 11개의
전시장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31개의
포드 공식 전시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와 공식 딜러는 전국
각지에 정비공장 및 킷서비스센터도 함께
운영하는 등 고객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2015년 12월 기준



SHOWROOM

서울	대치 전시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333 일동빌딩 1층	02-3442-2300
	신사 전시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03	02-3444-1300
	서초 전시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79	02-535-3800
	미아 전시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 167 동일하이빌뉴시티 1층	02-6355-1000
	노원 전시장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55 인산빌딩 1층	02-6226-1000
	동대문 전시장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람길 283	02-2246-2100
	강서 전시장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384	02-2063-6300
	송파 전시장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 118 포드빌딩	02-6928-3000
	방배 전시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132 장산빌딩 1층	02-6929-3000
	영등포 전시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64	02-6941-3000
경기	마포 전시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9	02-6420-1000
	일산 전시장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마로 514	031-913-2200
	수원 전시장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13	031-221-7600
	분당 전시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새마을로 81	031-714-2004
	평촌 전시장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80	031-425-2212
	구리 전시장	경기도 구리시 경춘로 158 한화생명빌딩 1층	031-8034-1000
	의정부 전시장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722	031-822-1000
	인천 전시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능화대로 257	032-832-0001
대전	대전 전시장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 650	042-823-2000
충남	천안 전시장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천안대로 566	041-562-0007
부산	부산 수영 전시장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558	051-758-0075
	부산 해운대 전시장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5로 55 센텀Q	051-741-5114
울산	울산 전시장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328	052-261-3388
경남	창원 전시장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대로 279-2	055-715-5000
대구	대구 전시장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129	053-766-2000
경북	포항 전시장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337	054-285-8899
광주	광주 전시장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226	062-515-1010
전북	전주 전시장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장동유통로 29-8	063-273-0005
강원	원주 전시장	강원도 원주시 치악로 1320	033-762-0040
	강릉 전시장	강원도 강릉시 경강로 2255번길 31	033-646-2300
제주	제주 전시장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515	064-759-9888

SERVICE

서울	강북 서비스센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람길 283	02-2216-1100
	강서 서비스센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384	02-3661-0011
	신사 서비스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03	02-3444-1304
	서초 서비스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 189	02-536-5150
	송파 서비스센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 118 포드빌딩	02-2039-3001
	북부 서비스센터	서울특별시 강북구 숭생로 277-4	02-6370-1000
	용산 서비스센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24	02-6177-1000
경기	분당 서비스센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새마을로 81	031-701-7004
	일산 지정 서비스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송산로 581	031-913-2913
	수원 서비스센터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13	031-237-6340
	평촌 서비스센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80	031-360-1500
	의정부 서비스센터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722	031-8030-1000
인천	인천 간석 서비스센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염전로 417	032-863-6080
	인천 구월 서비스센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655	032-471-6080
대전	대전 서비스센터	대전광역시 중구 유등천동로 624	042-226-7707
충남	천안 서비스센터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천안대로 566	041-563-0009
부산	부산 수영 서비스센터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562-9	051-758-0046
	부산 사상 서비스센터	부산광역시 사상구 낙동대로 932	051-715-2000
경남	창원 서비스센터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대로 279-2	055-715-3003
울산	울산 서비스센터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328	070-8897-4840
대구	동대구 서비스센터	대구광역시 동구 경안로 102길	053-963-0011
	대구 수성 서비스센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129	053-766-0755
광주	광주 서비스센터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226	062-515-1020
전북	전주 서비스센터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장동유통로 29-8	063-252-5400
강원	원주 서비스센터	강원도 원주시 치악로 1320	033-762-0041
	강릉 지정 서비스센터	강원도 강릉시 율곡로 2642	033-641-9213
제주	제주 지정 서비스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남로 7	064-759-1472



EMBRACE WINTER

편안함과 따뜻함 모두를 선사하는 가죽 스니커즈 부츠

ECCO HOLBROK 에코 홀브룩

롯데 본점 • 롯데 에비뉴엘 월드타워점 • 롯데 부산점 • 롯데 전주점 • 신세계 본점 • 신세계 강남점 • 신세계 센텀시티점 • 신세계 경기점
현대 본점 • 현대 목동점 • 현대 천호점 • 현대 미아점 • 현대 판교점 • 현대 대구점 • 워커힐면세점 • 롯데면세점 코엑스점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 • 어주 프리미엄 아울렛 •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김포점

ecco®
kr.ecco.com ECCO Korea 031- 628 - 4800

INTRODUCING 2016 NEW KUGA 디젤



유럽에서 탄생한 Dynamic & Smart SUV

2.0 TDCi 디젤 엔진 | 인텔리전트 AWD | 핸드스프리 테일 게이트 | 자동 주차 지원 시스템

신사 02)3444-1300	대치 02)3442-2300	서초 02)535-3800	방배 02)6929-3000	송파 02)6928-3000	노원 02)6226-1000
마포 02)6420-1000	미아 02)6355-1000	강서 02)2063-6300	동대문 02)2246-2100	영등포 02)6941-3000	구리 031)8034-1000
의정부 031)822-1000	분당 031)714-2004	일산 031)913-2200	수원 031)221-7600	평촌 031)425-2212	인천 032)832-0001
강릉 033)646-2300	원주 033)762-0040	대전 042)823-2000	천안 041)562-0007	전주 063)273-0005	광주 062)515-1010
대구 053)766-2000	포항 054)285-8899	부산수영 051)758-0075	부산해운대 051)741-5114	울산 052)261-3388	창원 055)715-5000
제주 064)759-9888					

정부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 2016 NEW KUGA 배기량 1,997cc, 공차중량 1,860kg, 자동 6단, 복합연비 13.0km/ℓ (도시연비 12.0km/ℓ, 고속도로연비 14.6km/ℓ), 3등급, 복합 CO₂ 배출량 146g/km
최근 강화된 연비측정방법으로 인해 연비가 하향되었으며, 기존 방식에 따른 연비는 복합 13.5km/ℓ, 도시 12.4km/ℓ, 고속도로 15.1km/ℓ 입니다.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정비상태 및 외기온도에 따라 실주행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Go Further

ford-korea.com